

# 濟州의 옛地圖



## 發 刊 辭



역사는 '오늘을 형성해 온 뿌리이자, 미래의 나침반' 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濟州의 옛地圖』를 펴내는 것도 제주의 옛 모습을 오늘에 비추어 보고 내일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문헌상으로 우리 제주지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정척 양성지의 『東國地圖』에 1463년의 『濟州三邑圖』가 있었다고 했으나 오늘에 전하여 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록된 81점의 옛지도들은 1698년에 『輿地圖』 중 『濟州牧』에서부터 1995년까지 역사, 교통, 통신, 물산, 행정사항 등 제주도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고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한점 한점의 지도마다 변방의 삶을 지탱하면서 「이어도」를 꿈꾸어 왔던 우리 제주선인들의 도전과 극복의 정신도 그려져 있습니다.

올해로서 도제 실시 50년을 맞은 우리 제주도민들은 지난 8월 1일 제주역사의 상징인 관덕정 앞에서 기념식을 가지며 「제2의 도제」를 개막하였습니다.

「제2의 도제」는 한반도 변방의 끝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가오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지도상에 우뚝한 제주도의 모습을 그리겠다는 도민의 의지와 비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비전은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 인간과 환경 중심의 개발, 복지에 대한 고양된 사회책임, 전통문화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구촌시대 문화의 공유 등을 통하여 그 실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디 이 옛지도들이 조상대대로 꿈꾸어 왔던 위대한 제주시대의 모습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자료를 협조해 주신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 여러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 11.

濟州道知事 愼久範



## ❖ 목 차 ❖

❖ 발 간 사 .....	愼久範(濟州道知事) .....
❖ 일러두기 .....	6

### 제1장 濟州全圖

1. 耽羅地圖并序 / 8	2. 耽羅巡歷圖 - 漢拏壯燭 / 10	3. 輿地圖 - 濟州牧 / 12
4. 海東地圖 - 濟州三縣圖 / 14	5. 海東地圖 - 濟州三縣圖 / 16	6. 濟州地圖 / 18
7. 濟州三邑都總地圖 / 20	8. 輿瀛誌 - 耽羅圖 / 22	9. 朝鮮疆域摺圖 - 濟州 / 24
10. 耽羅地圖并識 / 26	11. 各邑地圖 - 濟州 / 28	12. 湖南全圖 - 濟州 / 28
13. 湖南全圖 - 濟州 / 30	14. 全羅南北道輿地圖 - 濟州 / 32	15. 八道地圖 - 濟州 / 34
16. 海東諸國地圖 - 濟州 / 36	17. 青邱圖 / 38	18. 大東輿地圖 / 40
19. 東輿圖 / 42	20. 濟州三邑全圖 / 44	21. 濟州地圖 / 46
22. 大靜郡地圖 / 48	23. 旌義郡地圖 / 50	24. 古地圖帖 - 耽羅全圖 / 52
25. 廣輿圖 - 濟州牧 / 54	26. 海東輿地圖 - 濟州 旌義 大靜 / 56	27. 濟州郡邑誌 - 濟州地圖 / 58
28. 大靜郡邑誌 - 大靜郡地圖 / 60	29. 旌義郡邑誌 - 旌義地圖 / 60	30. 耽羅略圖 / 62

### 제2장 全羅道圖內 濟州地圖

1. 八道總圖 - 全羅道 / 66	2. 地圖誌 - 全羅道 / 66	3. 三韓一覽圖 - 全羅道 / 68
4. 左海分圖 - 全羅道 / 68	5. 左海輿圖 - 全羅道 / 70	6. 輿地攷覽圖譜 - 全羅道 / 70
7. 東國地圖 - 全羅道 / 72	8. 海東圖 - 全羅道 / 72	9. 東國地圖 - 全羅道 / 74
10. 東國八路分地圖 - 全羅道 / 74	11. 東國八城圖 - 全羅道 / 76	12. 八道地圖 - 全羅道 / 76
13. 八道地圖 - 全羅道 / 78	14. 八道地圖 - 全羅道 / 78	15. 朝鮮八道輿地全圖 - 全羅道 / 80

16. 海東輿地全圖 - 全羅道 / 80	17. 八道地圖 - 全羅道 / 82	18. 海東地圖 - 全羅道 / 82
19. 朝鮮地圖 - 全羅道 / 84	20. 海東輿地圖 - 全羅道 / 84	21. 東城圖 - 全羅道 / 86
22. 輿地圖 - 全羅道 / 86	23. 輿地圖 - 全羅道 / 88	24. 東國輿圖 - 湖南圖 / 88
25. 我東輿地圖 - 全羅道 / 90	26. 朝鮮八城圖-全羅道 / 90	27. 東國地圖 - 全羅道圖 / 92
28. 蝶城地圖 - 全羅道 / 92	29. 八道圖 - 全羅道 / 94	30. 古地圖의 八道圖 - 全羅道 / 94
31. 全南圖 / 96	32. 全羅南道全圖 - 濟州 / 96	

### 제3장 全國圖內 濟州地圖

1. 朝鮮八道古今總覽圖 / 100	2. 東國輿地之圖 - 제주부분 / 100	3. 朝鮮八道地圖 / 102
4. 朝鮮八道地圖 - 제주부분 / 102	5. 海左全圖 - 제주부분 / 104	6. 朝鮮國細見全圖 / 104
7. 朝鮮國細見全圖 - 제주부분 / 106	8. 東輿總圖 / 106	9. 朝鮮全圖 / 108
10. 朝鮮全圖 - 제주부분 / 108		

### 제4장 西洋地圖 및 現代式地圖

1. 日本地圖 / 112	2. 日本地圖 / 112	3. 朝鮮全圖 / 114
4. 동아시아지도 / 114	5. 제주지도 / 116	6. 제주도의 학교분포지도 / 123
7. 濟州島管內圖 / 124	8. 제주관광지도 / 125	9. 濟州道文化遺跡地圖 /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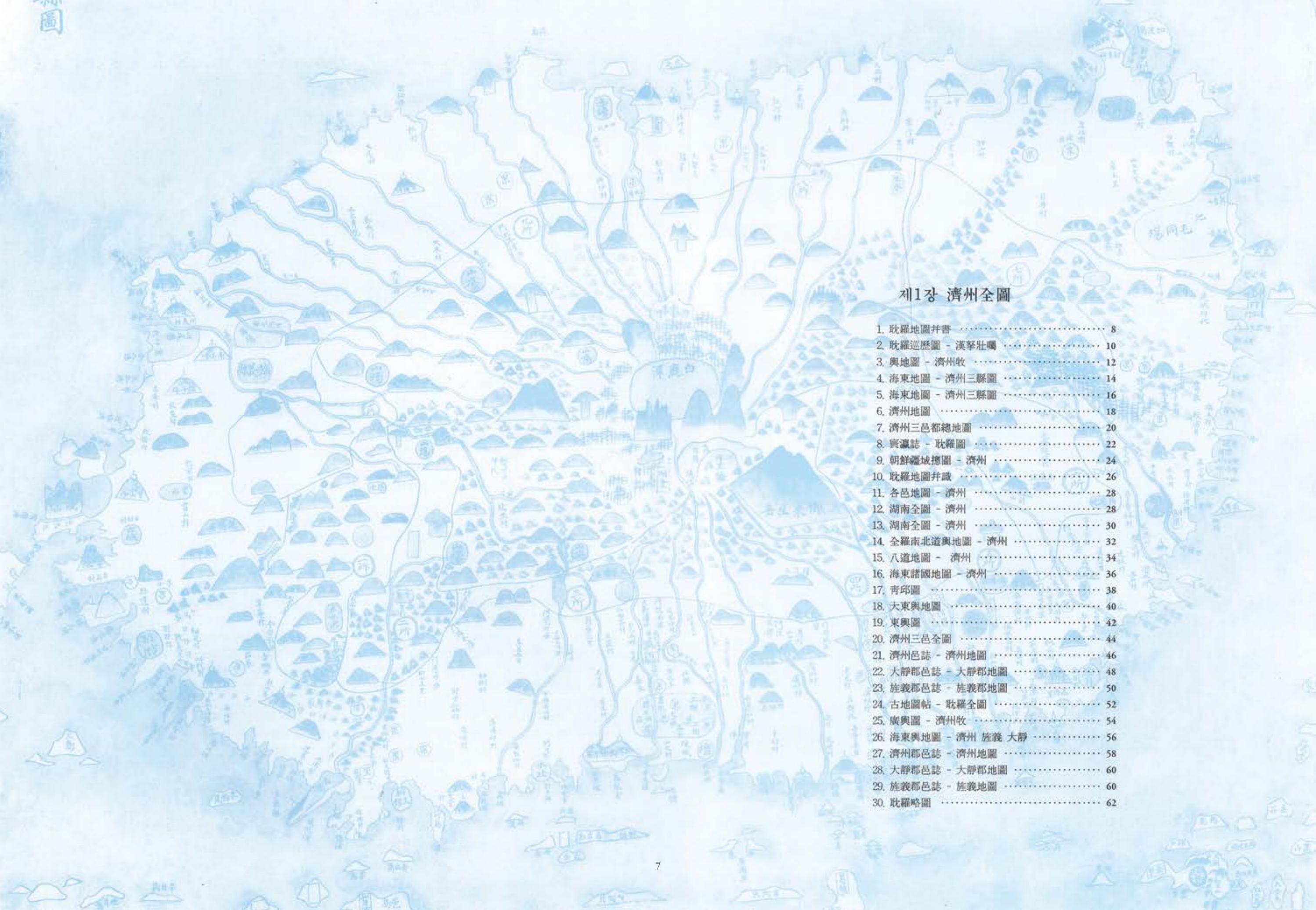
### 제5장 濟州의 옛地圖 研究 .....

❖ 발간경위 .....	梁才博(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長) .....
	130

❖ 題字 : 김순겸(서예가)  
 ❖ 寫眞 : 고길홍(사진작가)  
 ❖ 解説 : 이상태(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양보경(서울대학교 규장각 연구관)

### 〈 일러두기 〉

1. 지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전도, 전라도내 제주지도, 전국도내 제주지도, 서양지도내 제주부분, 현대식 제주지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2. 제주전도는 제주를 단독으로 그린 지도로 1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지도책내에 1장에 전도를 혹은 2장 이상에 걸쳐 그린 것도 있다.  
전라도내 제주지도와 전국도내 제주지도는 1장에 전라도, 전국도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편집·수록하였다.
3. 지도의 차례는 제작연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도의 규격에 따라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
4. 지도의 해설에 있어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품은 양보경 선생(규장각 특별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규장각 이외의 소장품은 이상태 선생(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이 작성하였다.
5. 지도해설은 제목, 크기, 제작시기, 지도형태, 제작자, 소장처, 내용 순으로 기술하였다.
6. 지도의 크기는 가로×세로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7. 내용의 서술 용어는 한글을 위주로 하였으나, 지도의 제목, 지명, 인명 등은 한글 다음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제1장 濟州全圖

- 1. 耽羅地圖并書 ..... 8
- 2. 耽羅巡歷圖 - 漢拏壯囑 ..... 10
- 3. 輿地圖 - 濟州牧 ..... 12
- 4. 海東地圖 - 濟州三縣圖 ..... 14
- 5. 海東地圖 - 濟州三縣圖 ..... 16
- 6. 濟州地圖 ..... 18
- 7. 濟州三邑都總地圖 ..... 20
- 8. 實瀛誌 - 耽羅圖 ..... 22
- 9. 朝鮮疆域摺圖 - 濟州 ..... 24
- 10. 耽羅地圖并識 ..... 26
- 11. 各邑地圖 - 濟州 ..... 28
- 12. 湖南全圖 - 濟州 ..... 28
- 13. 湖南全圖 - 濟州 ..... 30
- 14. 全羅南北道輿地圖 - 濟州 ..... 32
- 15. 八道地圖 - 濟州 ..... 34
- 16. 海東諸國地圖 - 濟州 ..... 36
- 17. 青邱圖 ..... 38
- 18. 大東輿地圖 ..... 40
- 19. 東輿圖 ..... 42
- 20. 濟州三邑全圖 ..... 44
- 21. 濟州邑誌 - 濟州地圖 ..... 46
- 22. 大靜郡邑誌 - 大靜郡地圖 ..... 48
- 23. 旌義郡邑誌 - 旌義郡地圖 ..... 50
- 24. 古地圖帖 - 耽羅全圖 ..... 52
- 25. 廣輿圖 - 濟州牧 ..... 54
- 26. 海東輿地圖 - 濟州 旌義 大靜 ..... 56
- 27. 濟州郡邑誌 - 濟州地圖 ..... 58
- 28. 大靜郡邑誌 - 大靜郡地圖 ..... 60
- 29. 旌義郡邑誌 - 旌義地圖 ..... 60
- 30. 耽羅略圖 ..... 62



## 1.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并序)

(제주도유형문화재 13호)

- 크 기 : 154cm x 94cm
- 제작시기 : 1709년 (肅宗 35년)
- 지도형태 : 흑백 목판본
- 제 작 : 이 규 성(李奎成)
- 소 장 처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3단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과 하단에는 제주도의 지리적 상황을 기록하였으며 중간에 제주도를 목판으로 새겼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제주도 지도처럼 지도 주변에 24방위를 표시하고 일본, 중국, 전남지역을 기록하였다. 상, 하단의 지리지 상황을 참고하면 제주도의 등서는 140여리이고 남북은 70여리라고 적고 있으며 목장은 13곳인데 제주목에 7개소, 정의현에 3개소, 대정현에 3개소가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지도에 적힌 10개소보다 3개소가 더 소개되어 있다. 봉수는 25곳이고, 연대는 38곳이며, 과원은 40곳이고, 방호소는 9개소이며, 촌점(村点)은 150곳인데 제주목이 102곳, 정의현이 35곳, 대정현이 13곳으로 적고 있으며 호구는 8,955호인데 제주가 6,991호, 정의가 1,449호, 대정이 815호이며 인구는 총 45,129명인데 제주가 33,585명이고 정의가 7,459명이며 대정이 4,085명이라고 적고 있다. 18세기초 제주도의 인구는 45,129명이었다. 주요한 오류는 거의 표기했는데 산모양의 음각으로 오류의 이름을 적고 있다. 포구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주변의 바다를 파도 무늬로 하였는데 이러한 바다의 표현법은 조선 전기의 표현법을 이은 것이다. 맨 마지막에 '강희기축(康熙己丑)'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는데 이 해는 1709년(肅宗 35년)에 해당된다. 제작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지도는 탐라순력도 뿐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귀중한 기록이다. 간행자가 이등(李等)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는 목사 이규성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제주목 선생안에 의하면 그는 1707년에 부임하여 1709년 5월에 이임하였는데 이 지도는 그가 이임하기 4개월 전인 1709년 정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2.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 (漢拏壯囑『耽羅巡歷圖』)

- 크 기 : 47cm x 30cm
- 제작시기 : 1702년 (肅宗 28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제 작 : 이 형 상(李衡詳)
- 소 장 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라** 장축은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주도 전역을 순시하면서 화공을 시켜 그린 탐라순력도의 총 41장 중의 일부이다. 목장은 10소장이 아니라 현(玄)자목장, 황(黃)자목장, 목일소장(牧一所場), 목삼소장(牧三所場), 대이소장(大二所場), 대삼소장(大三所場)등으로 기록하여 구분시켰으며 25개소의 봉수처와 38개의 연대는 까맣게 위치만 표시하였다. 과원 표시는 없으며 촌(村)과 리(里)는 마을 명칭만 적고 있고 방호소는 붉은 네모를 표시하여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였는데 이는 목사의 행정지도로 이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대부분의 오름을 적고 있으며 80여개의 포구도 대부분 적고 있다. 이 지도는 18세기에 지도제작 기법으로 나타나는 24방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제주도와 주변 지역과의 방향 거리 등을 적고 있다는 점이다. 해남은 북쪽으로 970리이며 유구국(琉球國)은 오(午)방향으로 5,000여리 된다고 적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지도의 제작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귀중한 지도책이다.

# 漢 挾 壯 曠



### 3. 여지도 중 제주목 (濟州牧 『輿地圖』)

- 크 기 : 29.2 cm X 19.2 cm
- 제작시기 : 1698년 ~ 1703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광여**도(廣輿圖)의 제주목(濟州牧) 지도와 비슷하게 둥근 감자 형태를 띤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듯 하다. 광여도에서는 제주도에 관한 내용이 매우 소략한데 비하여 이 지도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 점이 다르다. 목장은 천자문의 천(天)자로부터 윤(閏)자까지 명칭을 띠고 있으며 과원도 둥근 원으로 그려져 있고 25개소의 봉수(烽燧), 38개의 연대(煙臺), 9개소의 방호소도 잘 그렸으며 명칭까지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마을의 명칭 표기인데 종래의 촌(村)에서 리(里)로 옮겨가는 과정을 나타내듯 도호로촌(道好老村)이라는 촌과 오등생리(五等生里)라는 리(里)라는 명칭을 띠고 있는 마을 명칭이 섞여 있다. 오름 표기도 비교적 정확하다. 주변에는 일본 중국의 지역과 전라도 지역까지 그리고 있다. 제주목의 관아 명칭까지 자세하게 표기하였다. 좁은 지도에 많은 내용을 빠짐없이 적고 있기 때문에 지도가 복잡하고 조잡해 보이는 흠이 있다.



#### 4.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 『海東地圖』)

- 크 기 : 30.5 cm X 47 cm (8책)
- 제작시기 : 1750년경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750년(英祖 26년)경에 제작한 전국 군현지도첩 『해동지도』 제7책 중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 『해동지도』에는 두 종의 제주도 지도가 실려 있다. 지도 앞면에 기록된 주기(註記)에 의하면, 『해동지도』를 제작할 당시 제주목에는 목판으로 간행한 인본(印本) 2종이 있어, 두 종의 지도를 모두 수록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당시 제주읍에 보관하던 목판본 지도 중 한 벌을 모사한 것인데, 지도의 내용을 살펴 보면 1709년(肅宗 35년)에 간행된 『담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를 모사한 지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모사한 것이 아니고, 지도의 상하에 있던 설명을 제외하고, 채색을 적절히 가미하였다. 이에 따라 원본인 흑백의 목판본 지도에 비하여 보는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지도로 변화되었다. (지도의 내용상의 특징은 『耽羅地圖并序』 참조)



## 5.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 (濟州三縣圖 『海東地圖』)

- 크 기 : 30.5 cm X 47 cm (8책)
- 제작시기 : 1750년경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750년(英祖 26년)경에 제작한 전국 군현지도첩인 『해동지도』 제7책 중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 『해동지도』에 실린 2종의 제주도 지도 중의 하나. 지도 앞면에 기록된 주기(註記)에 의하면, 지도 제작 당시 제주목에 목판으로 간행한 인본(印本) 2종이 있어, 두 종의 지도를 모두 신는다고 적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당시 제주읍에 보관하던 목판본 지도 중 한 벌을 모사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또 하나의 제주도지도에 비하여 제주도의 윤곽이나 지형의 묘사가 부정확하다. 그러나 이 지도는 지형의 정확한 표시 보다 오히려 인문적인 내용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군현을 비롯하여, 조천관(朝天館), 명월소(明月所) 등 읍치(邑治)와 관방의 중심지를 크게 그려, 관아 배치의 구조를 살필 수 있다. 또한 과원(果園)을 황색의 타원형으로 표시하여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 6. 제주 지도 (濟州地圖)

- 크 기 : 102.5 cm x 126.5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송실대학교 박물관

**탐라** 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와 마찬가지로 지도 주변에 24방위를 표시하고 일본, 대마도, 중국, 전남 지역 등을 표시하였다. 목장은 10소장과 3개의 산장(山場)으로 그려져 있고 봉수대는 25곳이 표시되었는데 봉수대의 명칭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연대 38곳과 과원 10곳, 방호소 9개소와 촌점 150여곳도 모두 기록했는데 와산리(臥山里)라는 리 명칭과 달달촌(達達村)이라는 촌명이 혼재되어 있다. 방호소와 목장 등은 노란 원으로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한라산의 백록담을 비롯하여 330여개의 오름들을 거의 표기했으며 가능한 한 오름의 명칭도 모두 적고 있다. 제주도를 단독으로 그린 지도중 이 지도가 제일 크고 자세하며 제주도의 옛 역사지도를 대표하는 고지도라고 할 수 있다.



## 7.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總地圖)

- 크 기 : 122 cm x 119.5 cm
- 제작시기 : 1770년대
- 지도형태 : 흑백 필사본
- 소 장 처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고지도는 초기에는 등근 감자형이었다가 점차 실제 모습과 같은 고구마형으로 바뀌는데 이 지도는 위에 설명한 두가지 형태와 다르게 제주목이 큰 만을 이루며 내륙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 다른 지도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풍긴다. 한라산과 주변의 오름들을 입체화 시켜 한라산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라산 봉우리의 명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삼읍(三邑)의 연결 도로망이 잘 나타나 있으며 목장(牧場), 과원(果園), 봉수(烽燧), 연대(煙臺), 방호소, 포구 명칭도 모두 적고 있다. 지도 주변에 24방위를 표시했으며 전남의 해안도서, 일본, 중국의 일부를 적고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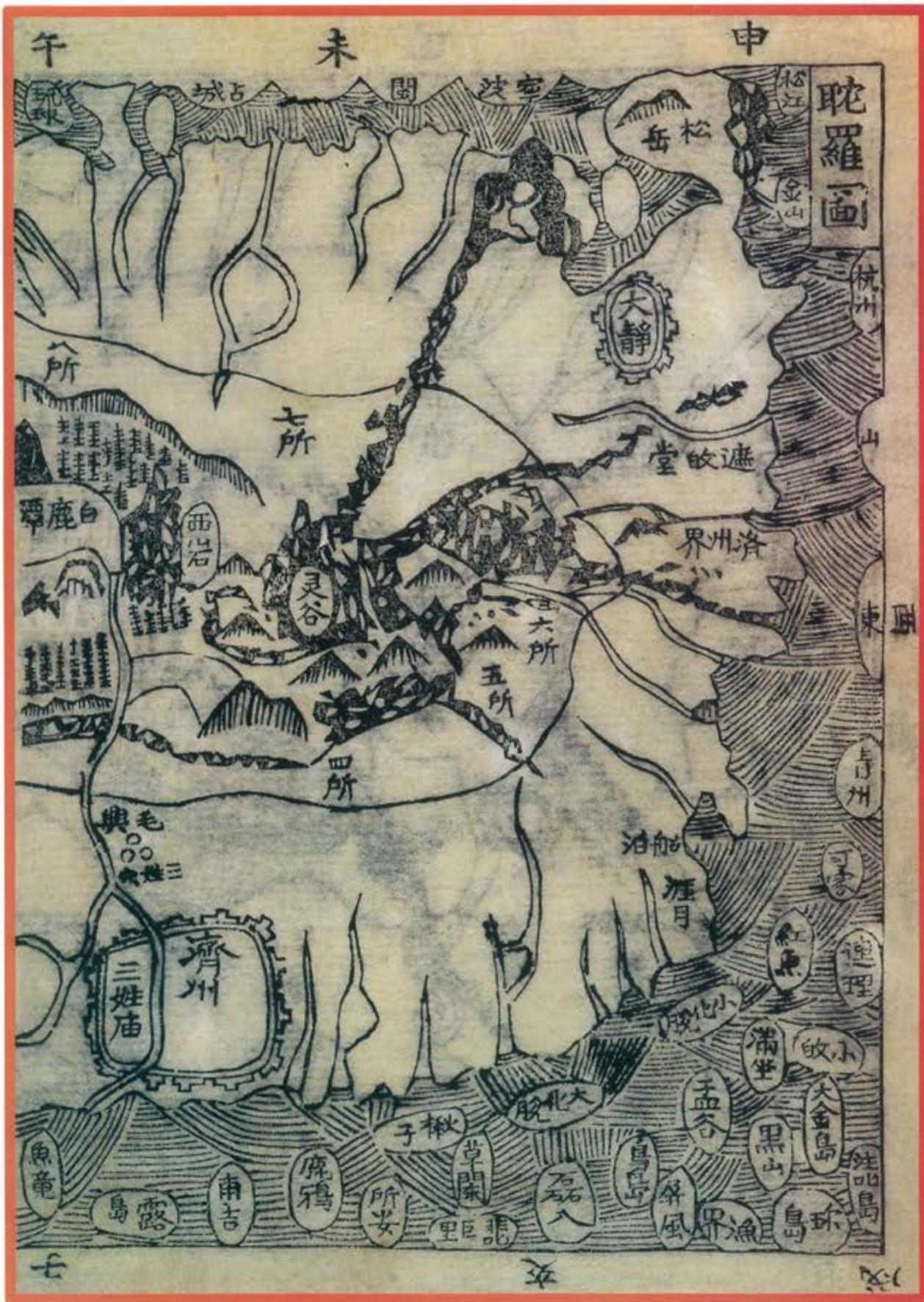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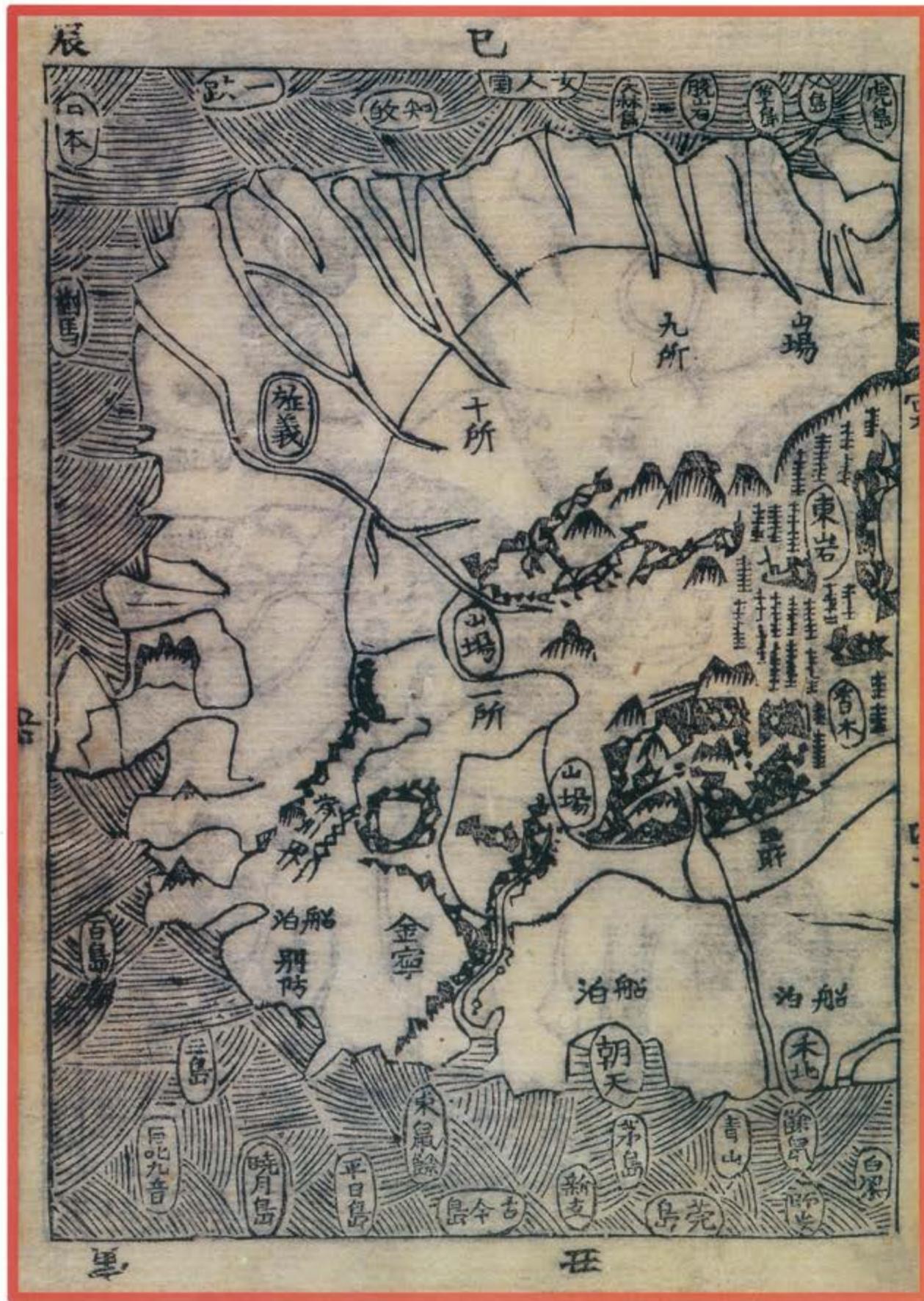
濟州三邑都摠地圖



## 8. 환영지 중 탐라도 (耽羅圖 『寰瀛誌(上)』)

- 크 기 : 31.5cm x 22cm
- 제작시기 : 1822년
- 지도형태 : 흑백 목판본
- 제 작 : 위 백 규(魏伯圭)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환영**지는 우주도와 중국의 13성도, 서양제국의 지도, 조선팔도도, 일본도, 유구도 등 방대한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탐라도는 조선팔도도내에 들어 있는 지도로서, 제주를 동서로 나뉘어 두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전체형태는 장방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한라산을 강조하고 있다. 주변 섬들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 반면 제주도의 지명에 대한 기록은 많이 빠져 있다. 목장이 10소(十所)로 표현되어 있고, 화북과 조천에 선박(船泊)이 표기되어 있다. 삼읍 경계가 표시되어 있으며, 한라산은 연첩식으로 표시되어 백록담(白鹿潭), 동암(東岩), 서암(西岩)이 표기되어 있다.



## 9. 조선강역총도 중 제주 (濟州 『朝鮮疆域總圖』)

- 크 기 : 37.5 cm X 40.0 cm (3軸)
- 제작시기 : 17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 제3축에 포함된 제주도 지도. 윤곽이나 지형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인문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기록된 지도이다. 고내현(高內縣)·곽지현(郭支縣)·애월현(涯月縣) 등 고현(古縣)도 표시되었다.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지도에 거의 표시되지 않은 사찰과 암자, 교량, 임수(林叢) 등이 풍부하게 표시된 점이다. 강진, 해남에서 제주까지 수로(水路)로 930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970리로 기록한 대부분의 지도와 차이를 보인다.



## 10. 탐라지도병지 (耽羅地圖并識)

- 제작시기 : 1841년
- 지도형태 : 목판본
- 제 작 : 이 원 조(李源祚)
- 소 장 처 : 이 수 학 개인소장

**탐라** 지도병지는 탐라지도병서를 그대로 모사(模寫)한 지도이다. 이 지도를 모사 제작한 이원조(李源祚, 1792-1871년)는 19세기에 활동했던 문신인데 그는 1841년(顯宗 7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바로 그해에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도는 3단으로 구성되어 상단과 하단에서는 제주도의 역사 지리적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 설명하고 있으며 중간에 제주도 지도를 그렸다. 탐라지도 병서는 목판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오류들을 음각했는데 이 지도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양각으로 표현했다.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1709년에 제작된 지도 내용을 대부분 전사했는데 호구수와 인구수도 그대로 모사하였으며 모사과정에서 잘못 오기한 부분까지 있다. 당시의 제주도 총 인구수는 45,129명인데 제주가 33,185명이고 정의현이 7,459명이며 대정현이 4,085명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들 세 군현의 인구를 합산하면 45,129명이 맞는데 이 지도에서는 45,125으로 4명이 적게 적혀있다. 이는 전사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또 18세기 초와 19세기 중엽까지는 150여년간 세월이 흘렀으며 인구도 많은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필사하였다. 이 지도의 실제 제작자는 제주도의 고경욱(高敬旭)임을 그의 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1709년의 탐라지도병서를 2/3로 축소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족자로 표구하여 벽에 걸어두면 보기에 아름답고 편리하며 앉아서 제주도의 사정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므로 행정자료로도 크게 공헌한다고 하였다.



## 11. 각읍지도 중 제주 (濟州 『各邑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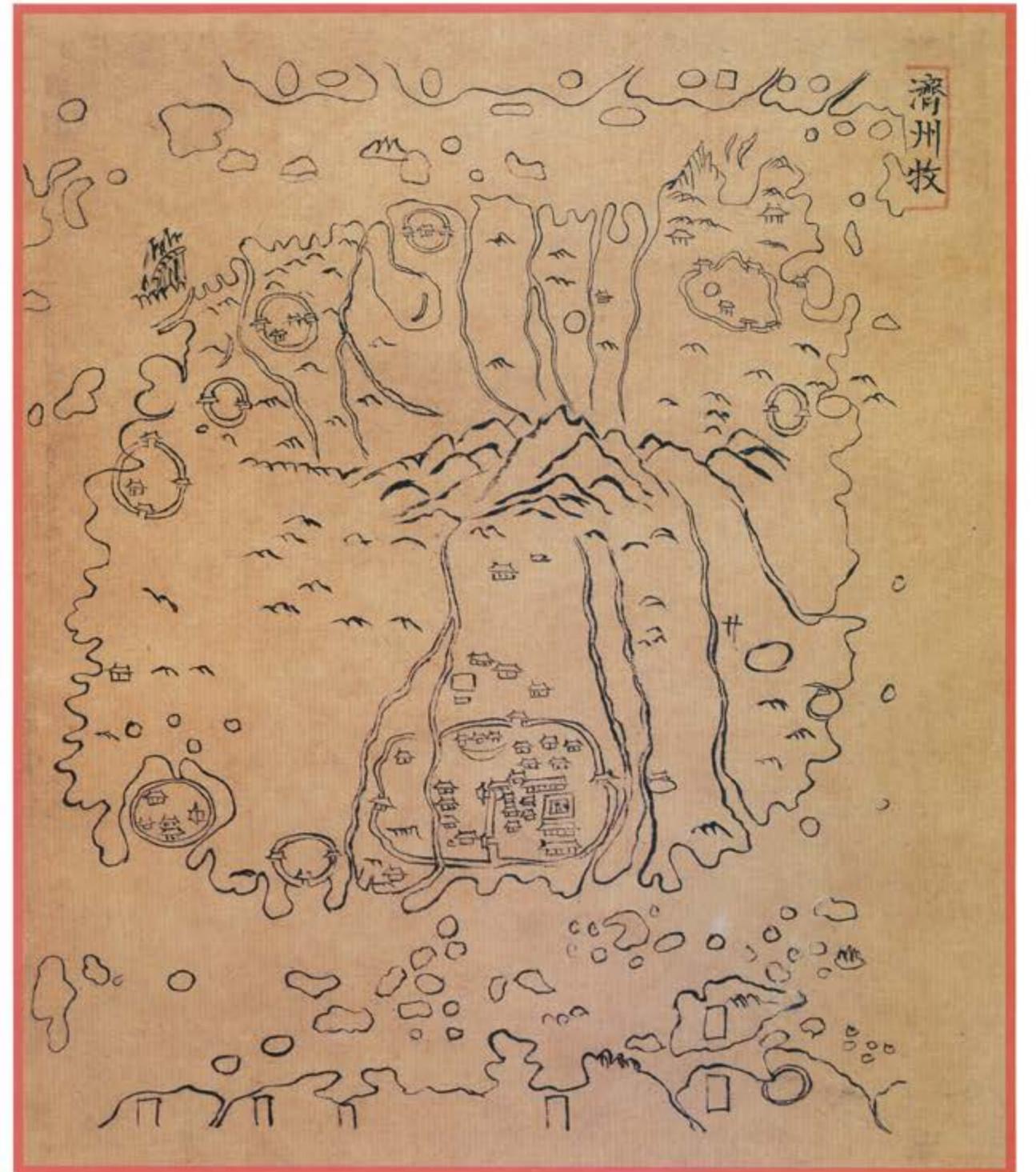
- 크 기 : 29.2 cm X 19.2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중엽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의 330여개 군현별로 제작한 군현도인데 경상도와 전라도 두 도분만 잔존하여 두도분이 합철되어 『각읍지도』라는 책명으로 소장되어 있다. 제주, 정의, 대정현의 표기도 없이 관아의 그림만으로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목장, 과원(果園), 봉수(烽燧), 연대(煙臺), 방호소 등의 표기도 전혀 없고, 포구 등의 표기도 안되어 있다. 오름 표기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개략적으로 그려진 소략한 지도이다. 조천관(朝天館)과 애월소(涯月所), 여단(翼壇), 정도만 그려져 있고 수산망(水山望)과 성산망(城山望), 반도(半島), 호도(虎島) 등도 그려져 있다. 17-18세기의 지도처럼 주변 국가인 중국의 지명과 전라도의 섬들과 대마도 등은 표기되어 있지만 24방위 표시는 빠져있다. 다른 제주도 군현지도를 보고 전사했겠지만 전사과정에서 너무나 소략하게 그렸다. 제주도를 단독으로 그린 다른 군현지도는 면(面)단위까지 자세하게 기록한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 12. 호남전도 중 제주 (濟州 『湖南全圖』)

- 크 기 : 21cm x 17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 책 속의 제주목과 비슷하나 그 지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목장은 천자문에서 순서를 따온 천자(天字)목장에서 부터 장자(藏字)목장까지 나타나 있으며 과원은 등근 원으로 그려져 있고, 25개소의 봉수는 고내망(古內望)등 망(望)으로 표시했으며 9개소의 방호소는 두 개의 등근 원으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마을의 명칭으로 월나촌(月羅村), 오등생리(五等生里)등 촌이나 리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는 점이다. 이것은 종래의 촌명에서 리명칭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명칭인 듯하다. 제주목의 관아 위치와 명칭을 표기한 것도 특이하다. 그리고 포구의 명칭을 일일이 적고 있으며 주변의 섬들도 대부분 표시되어 있다. 한라산의 산봉우리의 명칭을 두리서(斗里嶼), 죽생어외(竹生於外), 고량지어외(高良智於外), 문덕어외(文德於外)등으로 구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도 주변에 중국, 일본, 유구, 전라도 해안 지방으로 표기하여 향해의 방향을 잡도록 표기하였다.



### 13. 호남전도 중 제주 (濟州 『湖南全圖』)

- 크 기 : 21cm x 17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립** 중앙도서관의 여지도 속의 제주목 지도나 영남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제주목지도와 같은 계열의 제주도 지도이다. 9개소의 방호소를 두 개의 원으로 크게 그려 표시한거나 중요한 하천의 흐름, 한라산의 산봉우리 표시, 성산망의 표기, 지도 주변에 중국, 일본, 유구, 전라도의 해안선을 표기한 것 등은 앞서 설명한 두 지도의 표시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지도에는 그림만 그려져 있지 명칭이나 설명문이 전혀 적혀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 지도를 앞에 든 두 지도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아야만 대강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지도만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14. 전라남북도여지도 중 제주 (濟州 『全羅南北道輿地圖』)

- 크 기 : 33.5 cm x 38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영남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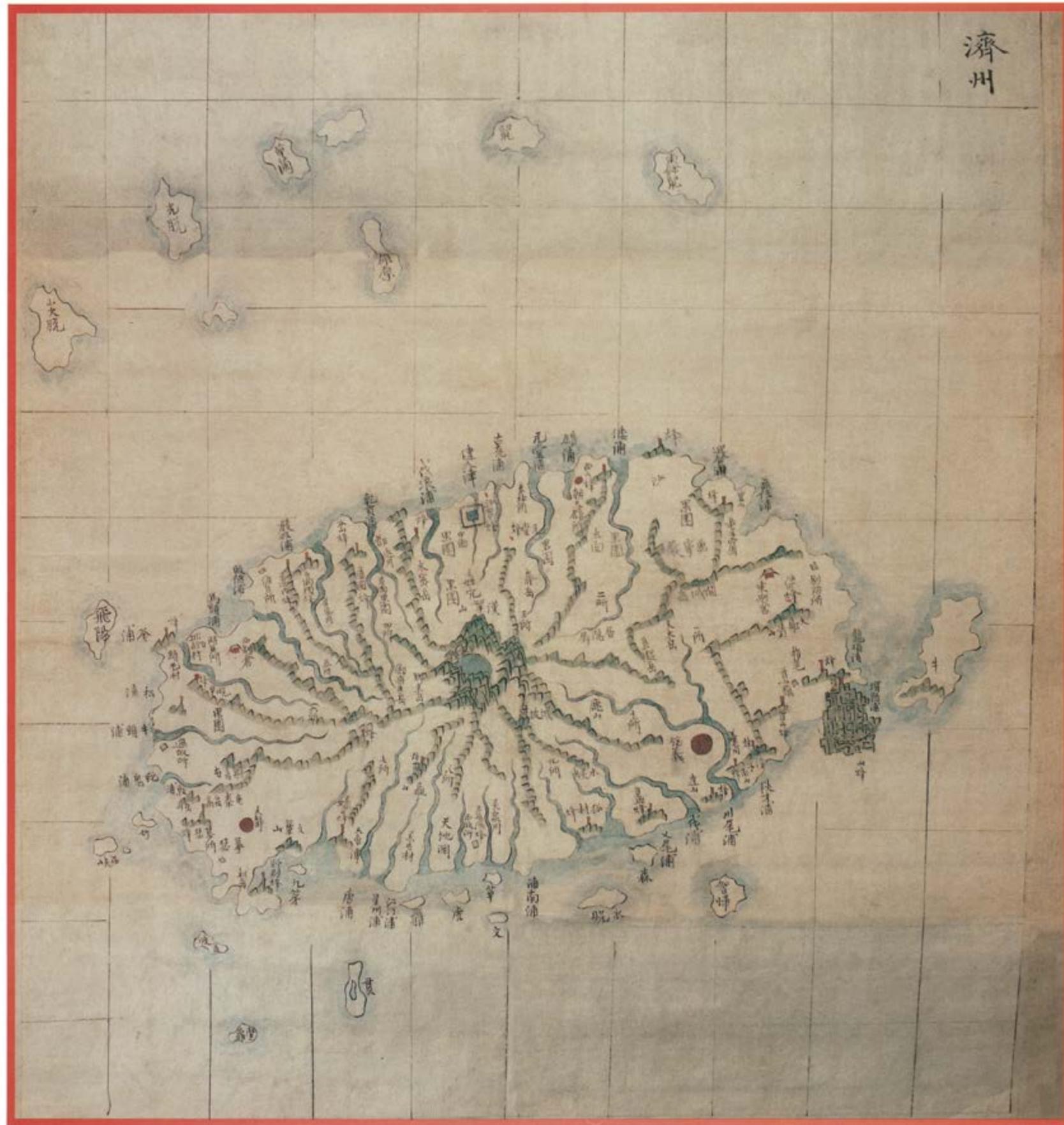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 책 속의 제주목 지도와 영남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호남전도 중의 제주목 지도와 동일 계열에 속하는 지도이다. 지도책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 제주도에 관한 지리적 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된 점이 눈에 띈다. 과원은 둥근 원으로 그리고 그 원안에 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25개소의 봉수는 햇불로서 위치를 표시하고 봉수대 명칭까지 적어 놓았으며 방호소는 큼지막하게 두 개의 원으로 둘러싸고 월나촌(月羅村), 오등생리(五等生里) 등 촌명과 리명이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앞에 지도를 그대로 전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촌명에서 리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제작된 지도이기도 하다. 포구의 명칭도 꼼꼼히 적었으며 한라산의 산봉우리 명칭을 두리서(斗里嶼), 죽생어의(竹生於外), 고량지어외(高良智於外), 문덕어외(文德於外)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지도 주변에 중국, 일본, 유구, 전라도 해안 지방을 표기한 것도 여지도와 동일하다.



## 15. 팔도지도 중 호남방여도의 제주 (濟州 『八道地圖〈湖南防輿編〉』)

- 크 기 : 26.4 cm X 18.3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을 8도군현별로 지도를 제작하여 8권의 지도책으로 만들었다. 그 중에 호남방여도에는 전라도의 57개 군현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이 지도책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지도와 제작 기법이 특이하게 방안도법에 의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위치나 거리가 정확성을 띠고 있다. 산맥과 하천을 중시하여 그렸기 때문에 다른 지도에 잘 그려져 있는 330여개의 오름이 이 지도에서는 산맥으로 처리하여 개개의 오름은 명칭만 표시되어있다. 연대(煙臺), 봉수(烽燧), 과원(果園), 목장, 포구 등도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중앙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하여 비변사(備邊司)등에서 이용한 지도인 듯 하다.



## 16. 해동제국지도 중 제주 (濟州 『海東諸國地圖』)

- 크 기 : 32.5 cm X 51.1 cm (1첩 : 16절)
- 제작시기 : 1700년대 말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79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제국지도』 중에 포함된 제주 지도. 이 지도는 중국, 일본, 유구(琉球, 지금의 오키나와), 서울 지도에 이어 제주 지도가 있고, 팔도의 도별지도가 뒤에 수록된 점이 특징적이다. 여러 종류의 지도로 구성된 지도책이나 지도첩 중에 제주지도가 단독으로 수록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1767년(英祖 43년)에 개칭된 경상도의 안의(安義)·산청(山淸), 1776년(正祖 1년)에 바뀐 평안도의 초산(楚山) 등이 새 지명으로, 그리고 경기도 수원이 화성(華城)으로 쓰여 있어 18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간략하지만 제주도내의 군현과 진보(鎭堡), 산지, 섬 등이 명료하게 그려져 있다.

濟州

牛島

城山

別防所

首山鎮

大服山

深洲山

義義

荊山

東餘風

電之岳

青山

濟州

漢

白鹿潭

山

天岳

木岳

天谷

山

序

森

椒子島

大天

小天

飛揚

所月涯

所月明

望水山

田飛岳

靜天

河

天

孤

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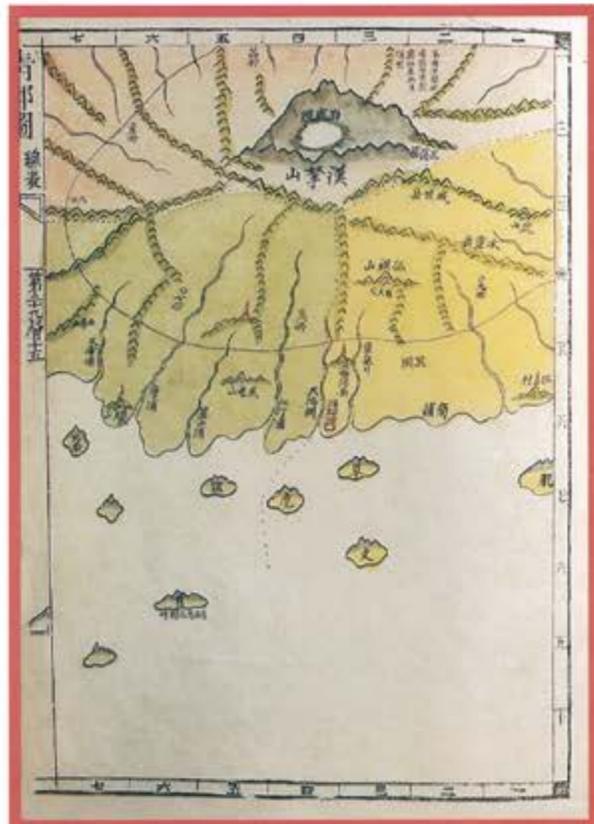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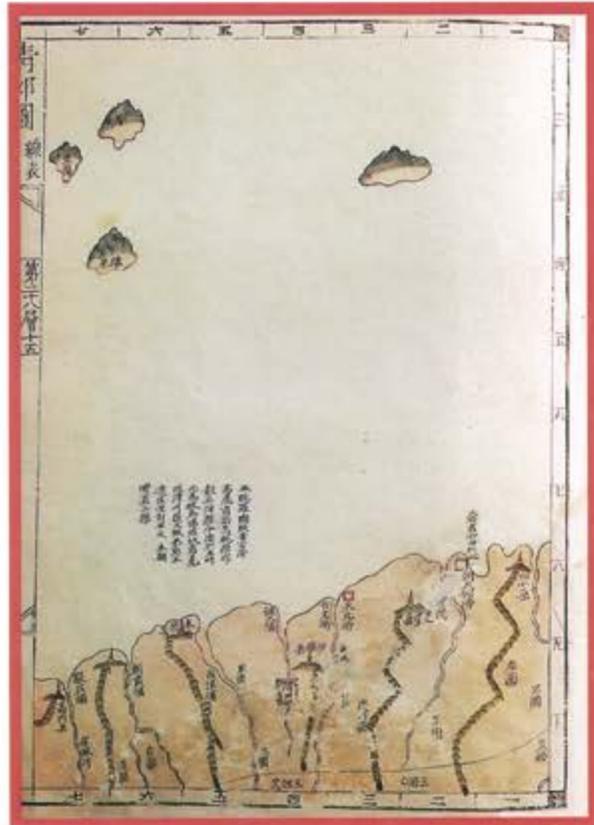
所



## 17. 청 구 도 ( 靑 邱 圖 )

- 크 기 : 35.2 cm X 23.2 cm
- 제작시기 : 1834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제 작 : 김 정 호 ( 金 正 浩 )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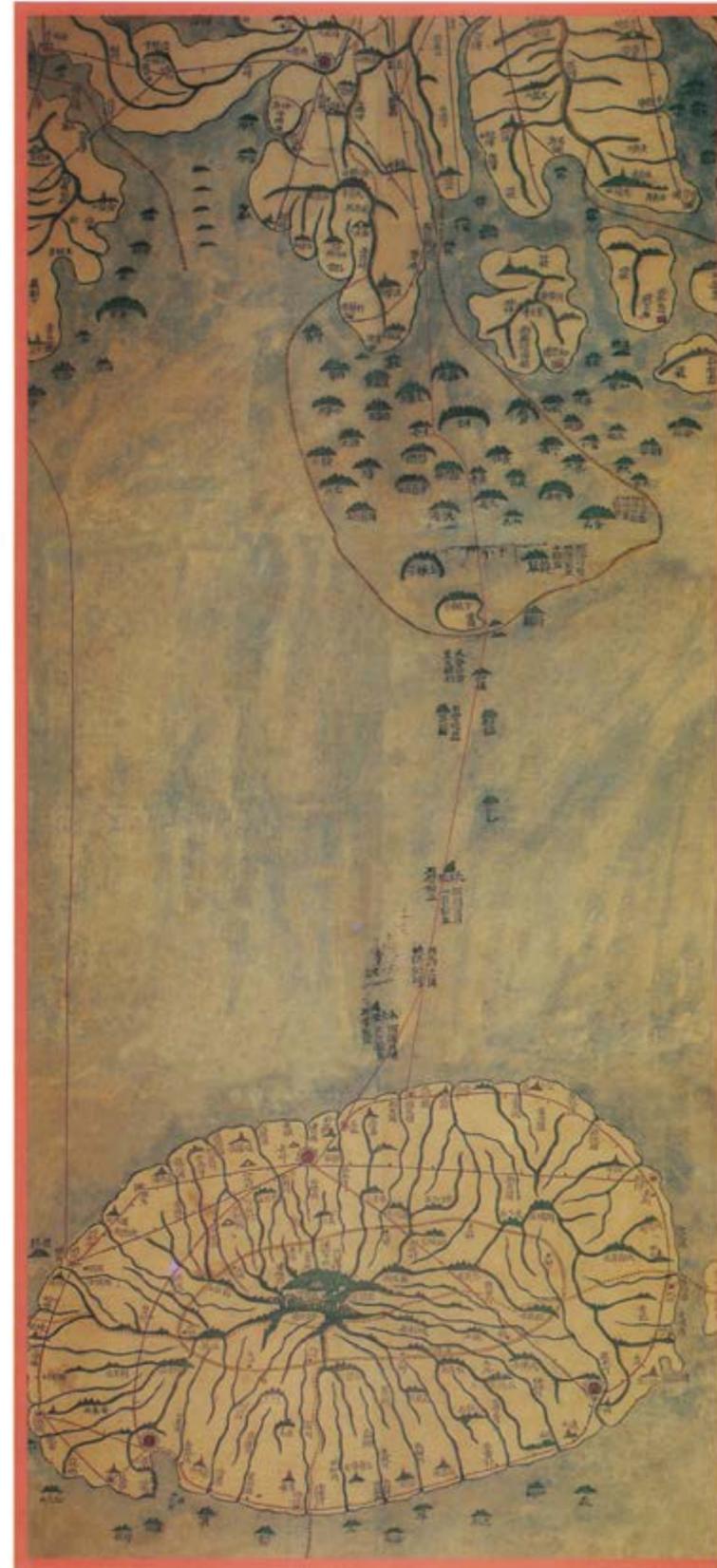
**제주** 도는 청구도의 제 28층 14도와 15도 제 29층의 14, 15, 16도에 걸쳐서 그려져 있다. 26층과 27층은 바다가기 때문에 그려져 있지 않다. 배방 70리이고 위도는 100리로 표기했다. 제주도의 역사를 부기(附記)했는데 제주도는 본래 탐라국(耽羅國)이었는데 백제에 복속되었고 고려 숙종(肅宗) 때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탐라군(耽羅郡)이 되었으나 의종(義宗)때 현(縣)으로 강등당하였다. 충렬왕(忠烈王)때에는 원나라에서 목마장을 설치했는데 목호(牧胡)등이 반란을 피하므로 공민왕(恭愍王)때 최영(崔瑩)을 파견하여 토벌하였으며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2개의 현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배령포(排伶浦)를 설명하기를 원나라때 바람을 타고 이곳을 출발하면 7주야만에 중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영의 토벌군이 이곳에 정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양도는 김방경(金方慶)이 삼별초난을 토벌할 때 우군(右軍)이 이곳에 들어와 주둔했다고 하였다. 목장 10소, 과원, 연대, 포구, 오름 등을 자세히 적고 있으며 산맥을 연결식으로 하천을 쌍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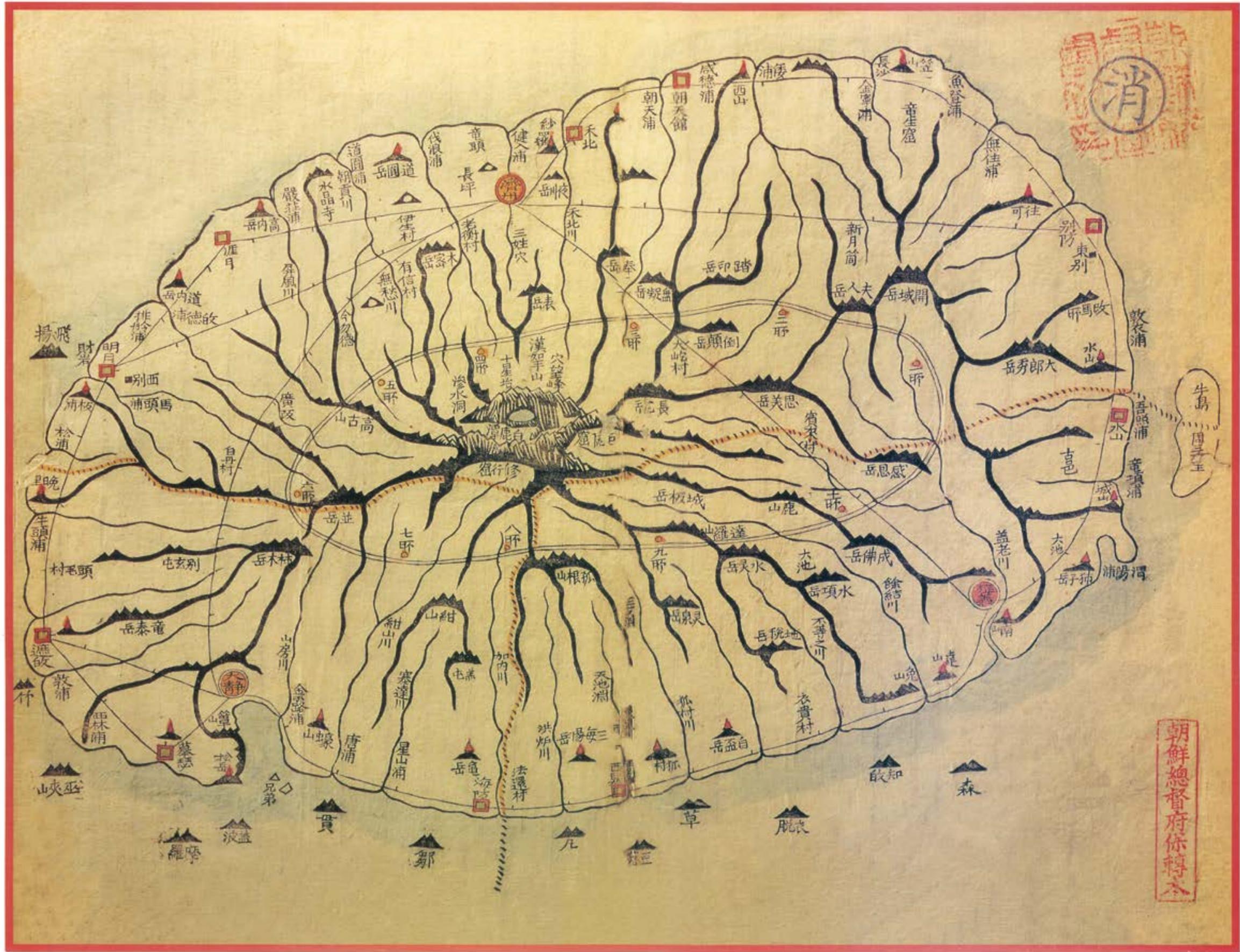


## 18.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 크 기 : 20 cm X 30.5 cm (22첩)
- 제작시기 : 1861년
- 지도형태 : 목판본에 加彩
- 제 작 : 김 정 호(金正浩)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61년(哲宗 12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 간행한 『대동여지도』 초간본(初刊本)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 원래 흑백의 목판본인데, 후에 소장자가 알아 보기 쉽도록 군현경계와 군현명 윤곽에 적색, 바다와 백록담에 청색 등을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직선으로 표시하고, 10리 마다 점을 찍어 거리와 지도의 축척을 표시해 놓아 지도상에서 지역간의 거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지를 선으로 이어지는 산악투영법(山岳投影法) 형식으로 표현하여 산줄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군현 경계는 점선으로 나타냈는데, 추자도는 제주 소속이 아니라 영암의 월경지였음을 알 수 있다. 군사요지인 진보(鎭堡)는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는데, 제주도의 진보는 모두 이중 사각형인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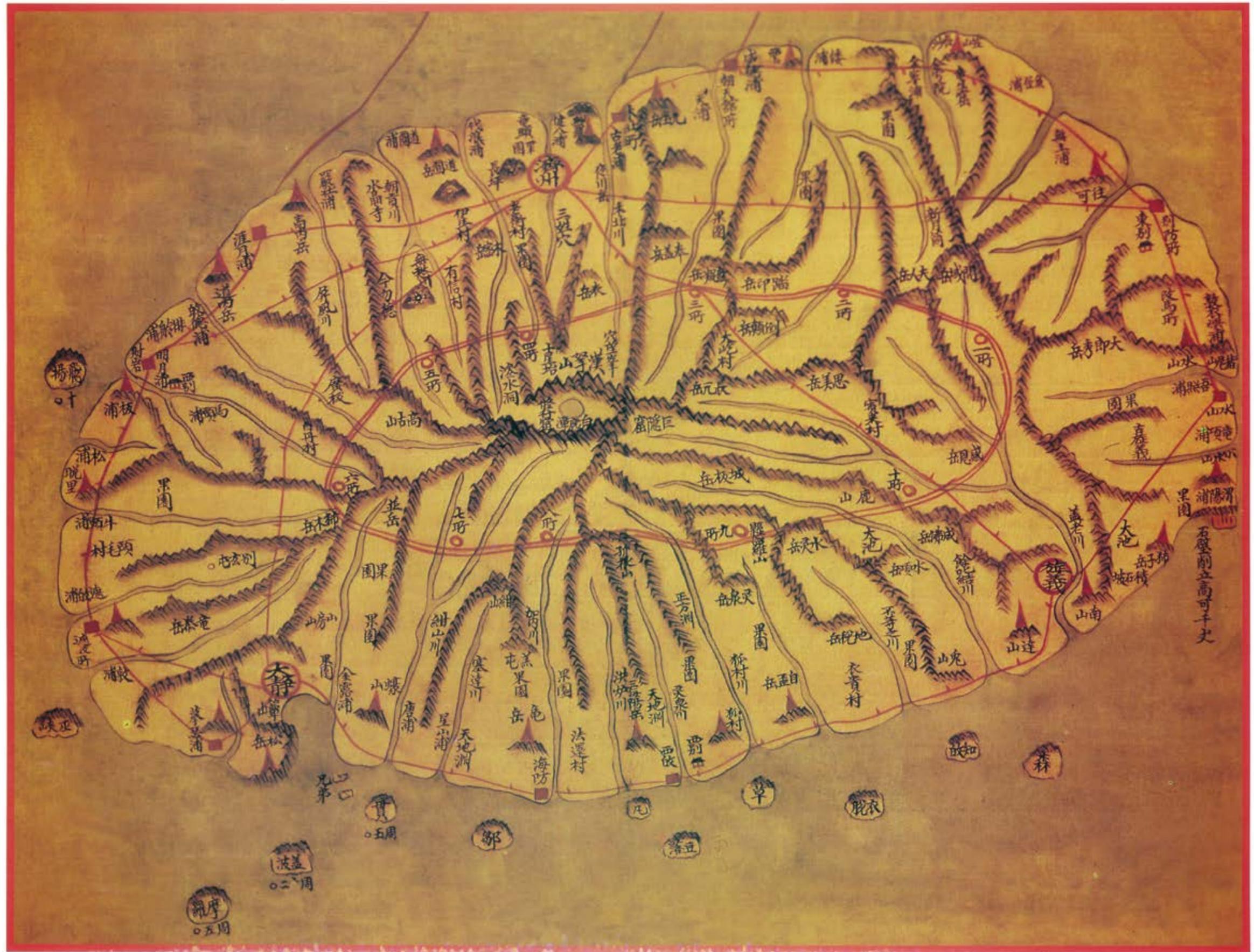
朝鮮總督府依轉本

## 19. 동여도 (東輿圖)

- 크 기 : 20 cm X 30.5 cm (23첩)
- 제작시기 : 18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제 작 : 김 정 호(金正浩)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00년대 후반에 제작된 전국지도인 『동여도』 제22첩에 포함된 제주도 지도. 동여도는 1857년(哲宗 8년)경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하여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의 저본을 삼았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일부에서는 『대동여지도』 제작 이후에 만든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규장각 소장인 『동여도』는 1872년(高宗 9년)경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와 내용은 유사하나 아름다운 채색필사본 지도이며, 설명(說明)과 약 7천여 개의 지명(地名)이 첨가되어 있고, 산맥의 표현법 등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23층으로 구성된 원본을 펼쳐 이으면 세로 약 7m 가로 약 32m의 대형 조선전도가 된다. 대동여지도와 달리 제주로 연결되는 4개의 수로(水路)가 홍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고지도 중 가장 다양한 바닷길이 표시되어 있다. 추자도 및 제주도 남단의 여러 섬의 둘레를 설명하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다. 지도 내용은 『대동여지도』와 거의 같으며, 십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를 나타냈다. 산천의 지형과 이름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면리(面里) 등 행정 지명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대동여지도에 누락된 과원(果園)이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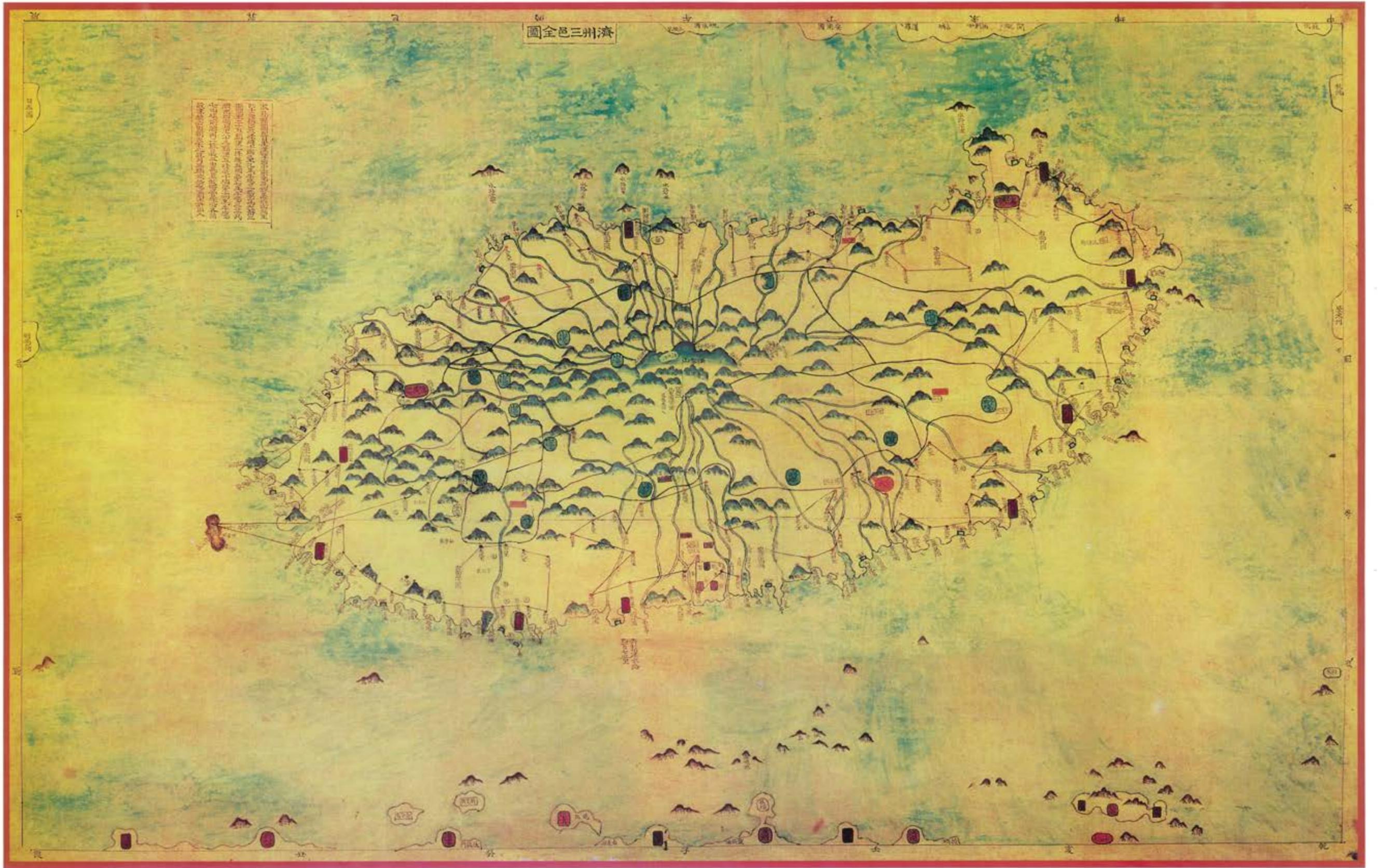




## 20. 제주삼읍전도 (濟州三邑全圖)

- 크 기 : 68.9 cm X 108.6 cm
- 제작시기 : 1872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72년(高宗 9년)에 전국 지도 제작의 일환으로 만든 제주도 지도. 표제(表題)는 '제주삼읍지도'이다. 병인양요·신미양요 등으로 외세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겪은 조선은 서양의 동점(東漸)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국방과 치안을 위한 관제(官制)의 개정, 군제(軍制)의 개편, 군사시설의 확충과 경비 태세의 강화, 군기(軍器)의 정비와 실험 등과 함께 전국 각 지역, 특히 군사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파악을 필요로 하였고 이것이 이 시기의 지도 제작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제작된 지도들은 도별로 장책되어 있지 않고, 각 군현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지도만 특별히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면인 '제주삼읍전도'가 제주도 전체의 안내 역할을 하며, 이어 제주목, 대정군, 정의군 삼읍의 지도가 별도로 있다. '제주삼읍전도'는 앞 시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었으나 이전의 지도에 비하여 한층 정확하다. 동서와 남북의 비례 등 제주도 전체의 윤곽이 이전 지도에 비해 정확해졌다. 또한 면명(面名)과 소속 등수(洞數), 리명(里名)을 기록하고, 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직선으로 표시된 점도 특징이다. 리의 위치를 표시한 작은 원의 색상을 달리하여 면(面)을 구분하였다. 가로, 세로로 가는 흑선이 그어진 것은 동서 140여리, 남북 70여리에 달했던 제주도의 정확한 거리 표시와 윤곽 표현을 목적으로 그은 30리 방안으로 추정된다.



## 21. 제주지도 (濟州地圖)

- 크 기 : 58 cm X 98.3 cm
- 제작시기 : 1872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72년(高宗 9년)에 전국의 군현지도 제작, 수합 때 제작한 제주목 지도.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며, 지도 하단에는 해남, 영암, 강진과 부속 도서들이 표시되어 있다. 제주 읍치 동쪽 화북진(禾北鎭) 아래에는 '去梨津水路970里'라 하여, 육지로부터의 거리를 기록하였다. 영암군의 월경지(越境地)였던 이진진(梨津鎭)은 지금의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에 있었다. 지도의 내용은 앞의 『제주삼읍전도』의 제주목 부분과 같은데, 크기만 확대해 놓은 듯한 대형이다. 서남쪽으로 대정군계의 명월진(明月鎭)부터 동남쪽으로 별방진(別防鎭)·우도(牛島)까지 한라산 북측 제주도의 절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면(面)에 따라 리(里)의 위치를 표시한 작은 점의 색채를 다르게 구분하였다. 한라산 백록담을 백색으로 채색하여 신성함을 돋보이도록 하였다. 지도의 방위는 동서남북만 기록하였다.



## 22. 대 정 군 지 도 ( 大 靜 郡 地 圖 )

- 크 기 : 57.8 cm X 97.4 cm
- 제작시기 : 1872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72년(高宗 9년)에 전국 지도 제작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대정군 지도. 1864년(高宗 1년)에 대정현은 군으로 승격하였다. 앞의 지도들과 달리 지도의 위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다. 지도의 남단에는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 안남국(安南國, 베트남), 섬라국(暹羅國, 타이), 점성(占城, Champa), 만라카(滿刺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였다. 또 지도의 서남단에는 소주(蘇州), 항주(杭州) 등 중국 동남부의 성명(省名)을 기록하여 중국의 상대적 위치도 나타냈다. 지도의 방위는 동서남북만 기록하였다. 읍지에는 객사(客舍)와 아사(衙舍), 창(倉), 과원(果園) 등이 그려져 있고, 읍성 밖에 사직(社稷), 여단(翼壇) 등이 표시되었다. 행정구역으로 3개 면 25개 동(洞)을 기록하였는데, 실제 촌락 이름에는 동(洞)이라 표시하지 않고 리명(里名)을 기록하였다. 리의 위치를 표시한 작은 원의 색상을 달리하여 면(面)을 구별하였다.

大靜郡地圖

廣林坪

北至濟州界十五里

西至濟州界十五里  
山峯音

茲木站  
東至旌義界五十七里



### 23. 정 의 군 지 도 ( 旌 義 郡 地 圖 )

- 크 기 : 58.0 cm X 97.6 cm
- 제작시기 : 1872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72년(高宗 9년)에 전국 지도 제작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의군 지도. 1864년(高宗 1년)에 정의현이 대정현과 함께 군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도 제목에 두 지역 모두 군으로 쓰였다. 앞의 지도들과 달리 지도의 위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다. 지도의 동단에 대마도, 일본국 등을 일부 그려 놓아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다. 지도의 방위는 동서남북만 기록하였다. 읍치에는 객사(客舍)와 아사(衙舍), 창(倉), 문묘(文廟) 등이 그려져 있고, 읍성 밖에 사직(社稷), 여단(厲壇) 등이 표시되었다. 서쪽으로 서귀진(西歸鎭)부터 동쪽으로 수산진(水山鎭)까지 그려져 있다. 행정구역으로 4개 면(面) 42개 동(洞)을 기록하였는데, 실제 마을 이름에는 동(洞)이라 표시하지 않고 리(里)로 기록하였다.



## 24. 고지도첩 중 탐라전도 (耽羅全圖 『古地圖帖』)

- 크 기 : 34 cm x 48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장처 : 영남대학교 박물관

**고려** 시대에 있었던 행정명칭인 고금령현(古金峯縣), 고함덕현(古咸德縣), 고토산현(古兪山縣), 고정의현(古旌義縣) 등이 적혀있으며 만수사(萬壽寺), 문수사(文殊寺), 해륜사(海輪寺) 등의 사원도 잘 표시되어 있다. 그외에 대지(大池), 고성(古城) 등의 유적도 잘 그려져 있으며 중요한 오름들을 일일이 표시하고 그 오름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등 어느 군현에 속하고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기하고 있다. 다만 제주목의 위치가 안쪽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주변의 섬들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 섬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우도(牛島)인 경우 섬 둘레가 100리인데 서남쪽에 구멍이 나 있어 조그마한 배를 댈 수 있으며 7, 8월에는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 또, 대정현 앞바다에 있는 죽도(竹島)는 왜선(倭船)들이 종종 침략해 온 곳임을 설명하고 있다.

耽羅全圖

東西七息  
南北四息  
自濟州南至海百千里  
自康海南水路九百三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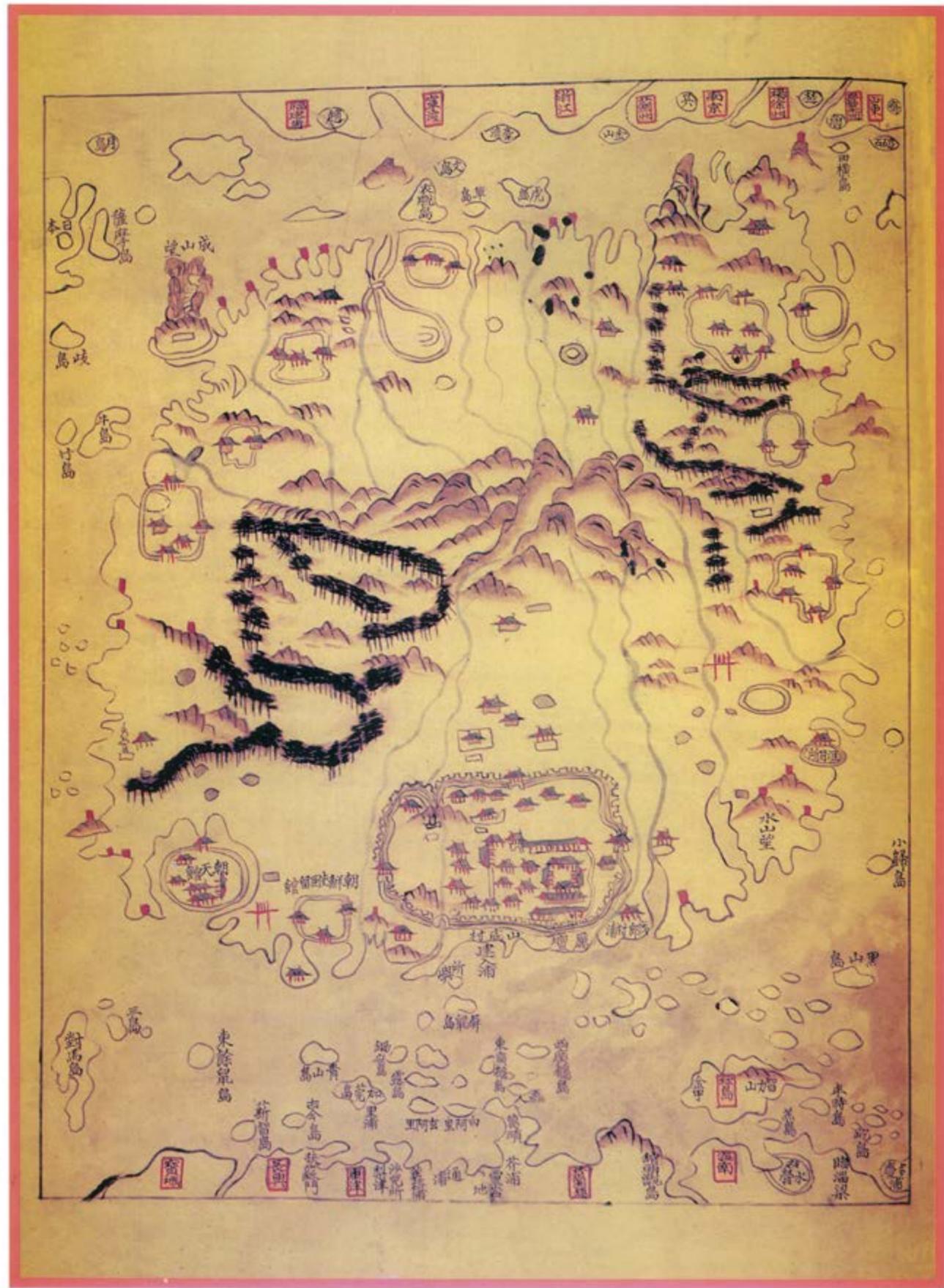
圖百里西南有穴可容小船  
稍進則甚廣其上如釜日見  
浮槿有神龍七八歲日往之  
則大風拔木

四面皆石壁東  
南一處可以泊  
船陸處入于此

## 25. 광여도 중 제주목 (濟州牧 『廣輿圖』)

- 크 기 : 37 cm X 28.3 cm (7책)
- 제작시기 : 18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00년대 전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군현지도집인 『광여도』 제3책 [호남도 湖南圖] 중  
에 수록된 제주목 지도. 『광여도』는 세계지도, 중국지도, 유구국지도, 일본지도 등 외국지도,  
그리고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와 같은 군사지도(關防地圖), 조선전도, 서울지도(都城圖), 8도의  
도별지도, 전국 각 군현의 군현지도가 망라된 총 7책 381장에 달하는 방대한 지도이다. 비슷한 유형의  
지도책들이 여러 곳에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형태의 지도책이 1700년대부터 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군현지도는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 뒷면의 지지 부분  
에는 인구, 전답, 원회미(元會米) 등 제정곡, 군정수, 성곽, 강계(疆界), 서울에서의 거리, 면(面), 서원,  
누정, 창고, 봉수(烽燧) 등 지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정을 덧붙였다. 지도의 내용은 간략하면  
서도 훌륭하며, 전국을 망라하는 공시적(共時的)인 지도이나 도로가 그려져 있다. 제주도의 윤곽이 원  
형에 가까우며 정확하지 않은데, 이는 일정한 크기의 책자로 만든데서 오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다  
른 군현의 지도에 비하여 제주목 지도의 내용은 매우 간략하며, 타군현 지도 이면에 기록된 주기(註  
記)도 제주목 지도에는 누락되었다. 또한 제주목 외에 대정현, 정의현의 지도도 수록되지 않았다.



## 26. 해동여지도 중 제주 정의 대정 (濟州 旌義 大靜 『海東輿地圖』)

- 제작시기 : 18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이 지도는 방안도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수 표시는 적색의 햇불모양으로 되어 있고, 명칭도 기록되어 있다. 목장(十所場), 과원, 그리고 포구가 표기되어 있다. 주변의 섬들은 실제 보다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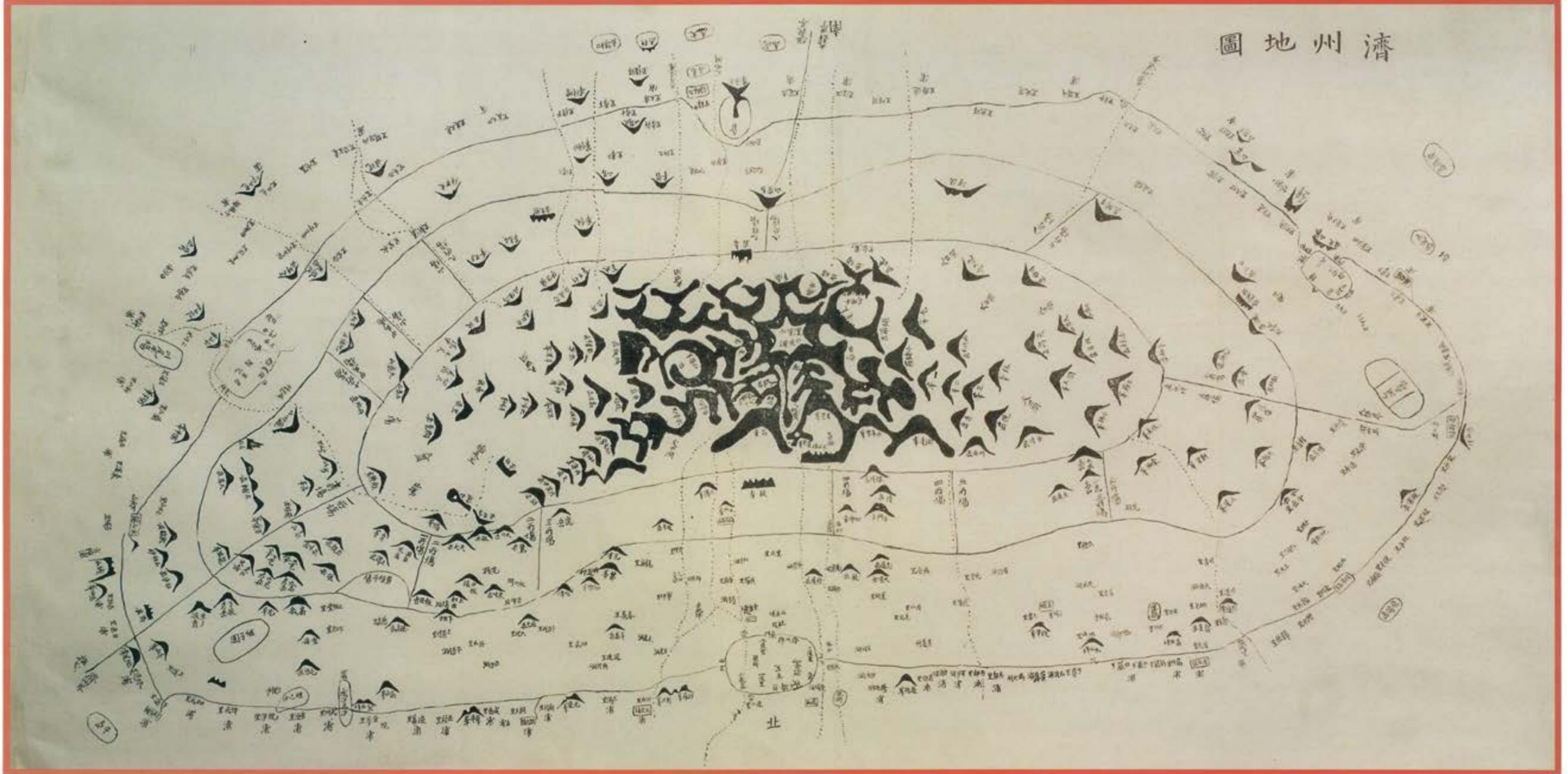


## 27. 제주군읍지 중 제주지도 (濟州地圖 『濟州郡邑誌』)

- 크 기 : 53.5 cm X 100.8 cm (1책)
- 제작시기 : 1899년
- 지도형태 :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99년(光武 3년) 5월에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 첫머리에 수록된 제주군지도. 읍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 역할을 하는 지도이다. 1895년과 1896년의 지방제도 개정으로 조선시대의 지방행정단위로 차등화되었던 부목군현(府牧郡縣)이 모두 군(郡)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주목도 제주군으로 명칭이 변화되었다. 읍지에 첨부된 지도이지만 매우 상세하여 당시 제주의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도이다. 산지를 산도(山圖)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며, 도로·군현경계 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선으로 표현한 점도 독특하다. 목장 지대 위쪽에 6곳의 화전동(火田洞)이 쓰여 있는데, 이전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지명이다. 지도 뒤의 읍지 본문에 화전세(火田稅)를 수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산장(山場)이 있던 곳에 화전촌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濟州地圖



## 28. 대정군읍지 중 대정군지도 (大靜郡地圖『大靜郡邑誌』)

- 크 기 : 31.1 cm X 41.5 cm (1책)
- 제작시기 : 1899년
- 지도형태 :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99년(光武 3년)에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대정군읍지』 첫머리에 수록된 대정군지도. 이 시기에는 읍지 편찬을 한달만에 완료하여 상송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읍지의 내용은 물론, 지도도 소략하고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하천을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읍 중심지 동서에 위치한 판교수(板橋戢)와 나수(螺戢), 팔소장(八所場) 동북쪽에 위치한 임수(林戢) 등 마을숲을 강조한 점이 독특하다. 1872년(高宗 9년) 지도에 비하여 左面에 월평리(月坪里), 도문리(道文里), 신에리(新攄里), 영남리(瀛南里), 상문리(上文里), 동중문리(東中文里), 中面에 상천리(上川里), 신청리(新淸里), 광평리(廣坪里), 동사계리(東沙溪里) 등의 마을 이름이 더 쓰여 있다. 읍지 본문의 방리(坊里)조에는 예전에 2면 22리였는데, 3면 35리로 증가되었음을 밝혀 놓아, 촌락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 29. 정의군읍지 중 정의지도 (旌義地圖『旌義郡邑誌』)

- 크 기 : 31.6 cm X 40.7 cm (1책)
- 제작시기 : 1899년
- 지도형태 :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99년(光武 3년)에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정의군읍지』 첫머리에 수록된 정의군지도. 앞 시기의 지도에 비하여 산천·포구 등 자연 지형이나 지명 보다 내륙의 마을 이름을 상세하게 표시한 점이 두드러진다. 1872년의 지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리명(里名)이 많아졌는데, 호근리(好近里)와 같이 신규(新舊)로 분화되거나, 예촌리(禮村里)처럼 상하(上下)로, 가시리(加時里)·세화리(細花里)·보한리(保閑里)·온평리(溫平里)처럼 동서(東西)로 촌락이 분화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읍지의 [방리 坊里]조에 보면, 예전에는 3면 38리였는데 지금은 4면 48리라고 증가된 촌락수를 기재해 놓아, 인구와 마을 수가 늘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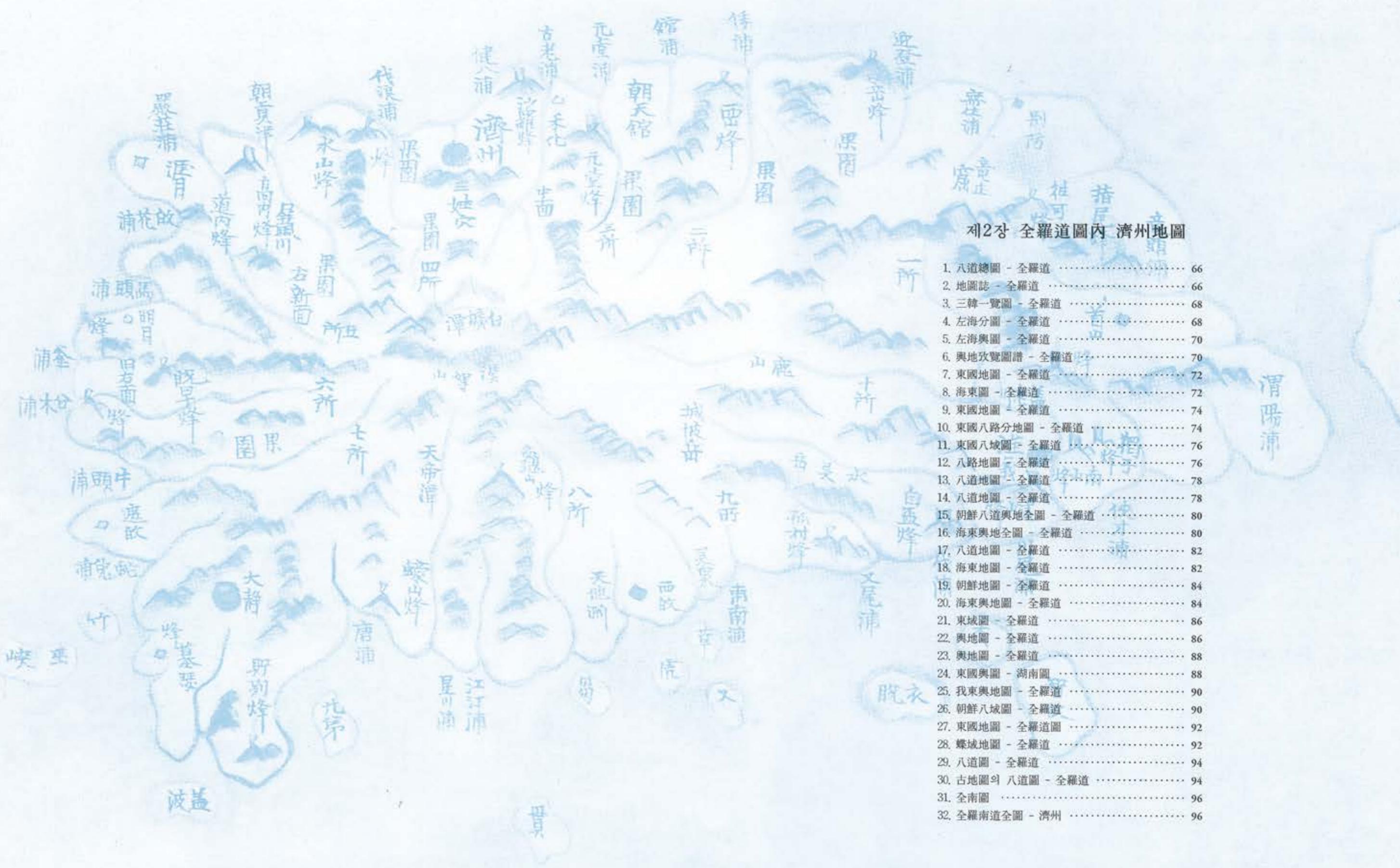
### 30. 탐라약도 (耽羅略圖)

- 크 기 : 40.5cm x 60cm
- 제작시기 : 1914년 이후
- 지도형태 : 흑백 필사본
- 소 장 처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정의군** 이 정의면으로, 대정군이 대정면으로 바뀐 것은 일제가 1914년 지방 행정 구역을 개편한 이후의 명칭이다. 따라서 이 지도는 일제 초기에 제작된 듯하다. 제주도의 전통 고지도에 나타나는 목장, 봉수처, 과원, 방호소, 오름, 포구등이 전혀 표기되지 않았으며 다만 167개에 해당하는 마을 명칭만 기록되었을 뿐이다. 각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자세하게 그려진 점으로 미루어 행정지도로 제작된 듯하며 제주 근해의 해로도 일부 표기하고 있다. 근대 지도인데도 경위선이 표기되지 않은 점이나 한라산도 그려져 있지 않다.







제2장 全羅道圖內 濟州地圖

1. 八道總圖 - 全羅道	66
2. 地圖誌 - 全羅道	66
3. 三韓一覽圖 - 全羅道	68
4. 左海分圖 - 全羅道	68
5. 左海輿圖 - 全羅道	70
6. 輿地攷覽圖譜 - 全羅道	70
7. 東國地圖 - 全羅道	72
8. 海東圖 - 全羅道	72
9. 東國地圖 - 全羅道	74
10. 東國八路分地圖 - 全羅道	74
11. 東國八城圖 - 全羅道	76
12. 八路地圖 - 全羅道	76
13. 八道地圖 - 全羅道	78
14. 八道地圖 - 全羅道	78
15. 朝鮮八道輿地全圖 - 全羅道	80
16. 海東輿地全圖 - 全羅道	80
17. 八道地圖 - 全羅道	82
18. 海東地圖 - 全羅道	82
19. 朝鮮地圖 - 全羅道	84
20. 海東輿地圖 - 全羅道	84
21. 東城圖 - 全羅道	86
22. 輿地圖 - 全羅道	86
23. 輿地圖 - 全羅道	88
24. 東國輿圖 - 湖南圖	88
25. 我東輿地圖 - 全羅道	90
26. 朝鮮八城圖 - 全羅道	90
27. 東國地圖 - 全羅道圖	92
28. 蝶城地圖 - 全羅道	92
29. 八道圖 - 全羅道	94
30. 古地圖의 八道圖 - 全羅道	94
31. 全南圖	96
32. 全羅南道全圖 - 濟州	96

## 1. 팔도총도 중 전라도 (全羅道 『八道總圖』)

- 크 기 : 32.5 cm X 40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팔**도별도(道別圖)와 총도(總圖)를 묶어놓은 지도책이다. 지도의 형태는 국보 248호인 조선방역도 양식을 본따 만주지방까지 포함하여 그린 조선 전기 지도 양식을 모사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8도를 그리면서 인근지역도의 사정도 병기했기 때문에 주변 정세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가령 전라도를 그렸지만 그 북쪽의 충청도 일부와 그 우측의 경상도의 대부분을 같이 그리고 있다. 산맥은 연첩식으로 나타냈으며, 하천은 단선으로 그렸고, 도로망이나 진산, 저명한 지형지물 등의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조로움을 주는 지도이다. 그러나 주변의 섬은 아주 작은 섬이라도 할지라도 일일이 그리고 그 섬명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많은 참고가 된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은 제주, 대정, 정의현과 한라산만 표기했고 산맥은 연첩식으로 그렸으며 다른 내용은 별로 기록되지 않았고 섬들도 간략하게 그려져 있을 뿐이다.

## 2. 지도지 중 전라도 (全羅道 『地圖誌』)

- 크 기 : 36 cm x 30.5 cm
- 제작시기 : 1600년대 중엽
- 지도형태 : 필사본
-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강화**도도, 도성도, 경상도도, 전라도도, 함경도도, 평안도도, 충청, 강원, 황해, 경기, 함경도 등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제주도는 전라도 속에 포함되어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인조 1640년(仁祖 18년)에 설치된 칠곡부(漆谷府)는 표기되었는데 1682년(肅宗 8년)에 부활되는 순흥부(順興府)나 영양현(英陽縣) 등이 표기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1640년부터 1682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인듯하다. 제주도의 둘레가 400여리이고 동서의 폭이 7식(息)이며, 남북의 길이는 3식(息)으로 기록하고 있다. 300여개의 오름중에 효별악(曉別岳)과 원당악(元堂岳)만을 그렸고 한라산 정상에 천지봉(天池峯)이 있고 한소라(漢所拏)에서 한라산의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3. 삼한일람도 중 전라도 (全羅道 『三韓一覽圖』)

- 크 기 : 47.5 cm X 47.0 cm (1첩:5절)
- 제작시기 : 17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700년대 전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삼한일람도』 지도첩 중의 전라도 지도. 비교적 빠른 시기의 지도첩으로서 간략한 지도이다. 산지를 남색으로 뚜렷하게 표시하였으며, 바다에는 조선 전기에 많이 보이는 물결 문양이 그려져 있어 고풍을 느끼게 한다. 산성(山城)을 크게 그려 강조한 점이 특징인데, 전주의 위봉산성과 장성의 입암산성에는 산성 이름을 쓰지 않은채 산성만 그려 놓았고, 순창의 대모산성(大母山城)에는 이름을 기록하였다. 섬들을 크게 그렸으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다. 제주도도 실제 보다 크게 그렸으며, 한라산 북쪽에 섬의 동서, 남북, 둘레의 길이를 기재하였다.

### 4. 좌해분도 중 전라도 (全羅道 『左海分圖』)

- 크 기 : 79cm X 49cm (1첩:8절)
- 제작시기 : 1700년대 중엽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700년대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좌해분도』 지도첩 중에 포함된 전라도 지도. 하천 등 지형의 묘사가 정교하며, 바다를 청색의 선염(渲染)으로 처리하여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분명하다. 지도의 내용도 상세하여 산천, 면명(面名), 창고, 진보(鎭堡) 등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제주도 부분은 도별지도 중의 일부이므로 간략하다. 그러나 목마장 십소(十所), 하천, 진보 등을 잘 나타냈다.



## 5. 좌해여도 중 전라도 (全羅道 『左海輿圖』)

- 크 기 : 60.0 cm X 90.0 cm (1첩)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1700년대 후반에 제작된 『좌해여도』 중의 전라도 지도 역시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첩이다. 『동국지도』를 필사하면서, 모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 지도 여백에는 군 현의 일정(日程)이 기재되어 있다. 정도(程道), 이정(里程) 등으로도 불리는 일정은 지역간의 거리를 절대 거리인 이수(里數)로 표시하지 않고 시간 거리인 일자(日字)로 표시한 것인데, 제주도의 군현들의 일정은 기록되지 않았다. 지도의 지명을 보면 1776년에 바뀐 충청도 이성(尼城)이 나타나 있고, 1787년(正祖 11년)에 신설된 함경도 장진부(長津府)가 없어 1776년~1787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할 수 있다.

## 6. 여지고람도보 중 전라도 (全羅道 『輿地攷覽圖譜』)

- 크 기 : 45 cm X 37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중엽
- 지도형태 : 채색 목판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동국 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동람도(東覽圖) 계통을 잇는 지도로 천하도, 중국도, 동국 8도대총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안, 함경, 일본, 유구국의 13종을 수록한 지도책이다. 경상도의 산청(山淸)과 안의(安義)가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영조년간에 제작된 듯하다. 전라도 지도에 부기(附記)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제주도는 옛날에 탐라국(耽羅國)이었으며, 둘레가 400여리이고, 수로는 970리이며, 고을나·부을나·양을나가 땅에서 솟아나와 국가를 건설했다고 하였다. 제주도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며, 여우와 토끼는 없는 곳이라고 적고 있다. 서울까지의 일정을 대정, 정의, 제주목 공히 11日半이 걸린다고 하였으며 제주목의 관원은 목사이고 대정현과 정의현은 현감이 관원이라고 적었고 한라산이 진산임을 나타내고 있다.



## 7. 동국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東國地圖』)

- 크 기 : 98.7cm x 61.8cm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호암미술관

**정** 상기(鄭尙驥)의 팔도분도를 모사한 지도이다. 백리척(百里尺)의 축척표시가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라도 56개 군현중 좌도 21관과 우도 35관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주기란을 참고하면 각 군현명을 쓰고 그 군현의 관원 등급이 목사, 부사, 현령, 현감인가를 적었으며 관할 행정구역이 몇 개 면이고 그 군현이 서울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를 적고 있다. 예를 들면 무주(茂朱)는 부사가 관원이며 12개의 행정관할 면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까지의 거리는 480리라고 적혀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는 목사가, 대정과 정의현은 현감이 관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는 이진포(梨津浦)에서 출발하여 추자도를 거쳐 수로 700리라고 적었고 정의현은 제주에서 104리 떨어져 있고 대정현은 102리 떨어져 있다고 적고 있다. 지도에는 도로망과 하천, 산맥 표시들이 자세하며 특히 도로상 중요한 지형지물은 모두 표기하여 이 지도를 이용하여 여행하는데 편하게 하였다. 제주도의 산맥도 연침식으로 표기하고 다량수악(多鄕水岳), 명도악(明道岳), 우수악(牛水岳) 등 주요 오름만을 적고 있는데 하천, 목장, 과원 등의 표기도 없으며 행정구역 명칭도 생략되어 있다. 별방소(別防所), 차귀소(遮歸所) 등 방어진은 잘 나타내 있다.

## 8. 해동도 중 전라도 (全羅道 『海東圖』)

- 크 기 : 44.5cm x 45cm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호암미술관

**정** 상기(鄭尙驥)의 팔도분도를 충실하게 모사한 전형적인 지도이다. 동 미술관에 소장된 동국지도보다 후에 제작된 지도로서 백리척의 표시나 주기사항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 내용은 더욱 다양하고 상세해져 많은 시설들을 기록하고 있다. 도로망, 하천, 산맥 등의 표시가 자세하고 도로상의 중요한 지형지물도 모두 기록해 놓았다. 제주도의 산맥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연침식으로 그렸으며, 하천도 표기했고, 도로망도 그려져 있다. 다량수악(多鄕水岳), 성판악(城板岳) 등의 주요한 오름만 표기되어 있고 목장은 10곳이 잘 나타나 있으며 별방소 등의 방어진은 자세히 적어 놓았다. 동국지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제작된 지도이다.



## 9. 동국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東國地圖』)

- 크 기 : 27.5 cm X 21.6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정** 상기(鄭尙驥)의 팔도분도를 필사한 지도인 듯 한데 백리척(百里尺)의 표시나 발문(跋文) 등이 기록되지 않았다. 산맥은 연침식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나 도로망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봉수대(烽燧臺)의 위치도 표시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저명한 지형지물 등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는 수로가 700여리라고 기록했으며, 방호소는 빠짐없이 기록했으나 연대(煙臺), 과원, 목장 등의 표기는 없고 방안도법도 쓰지 않았다. 우수악(牛水岳) 등 주요 오름 등도 적고 있다. 우도(牛島), 비양도(飛揚島), 추자도(楸子島) 등도 그려져 있다. 우수악 옆에 삼별초가 활동하던 곳임을 적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 10. 동국팔로분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東國八路分地圖』)

- 크 기 : 140 cm X 65 cm
- 제작시기 : 1767 - 1776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8도** 분도로 되어있지만 정상기(鄭尙驥)형의 팔도분도가 아니다. 충청도의 니성(尼城)과 함경도의 이성(利城)의 명칭이 바뀌지 않고 경상도의 안음(安陰)과 산음(山陰)이 안의(安義)와 산청(山淸)으로 바뀐 점으로 미루어 영조 말엽(英祖 末葉)인 1767년부터 1776년 사이에 제작된 듯하다. 지도가 대형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내용이 풍부한데 도로망과 하천, 저명한 지형지물, 산성(山城) 등도 자세히 표기되었으며 특히 각 군현의 하부 행정구역인 면(面)의 명칭을 일일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옛 지명을 고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제주도는 수로를 감안하여 전라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그려졌는데 목장, 과원, 포구, 연대, 방호소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의 우신면(右新面), 구우면(舊右面), 중면(中面) 등의 하부 행정구역도 일일이 표기되어 있다. 산맥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연침식으로 그렸으며 하천과 수산악(水山岳) 등 중요한 오름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제주도 단독 지도가 아니고 전라도도의 일부로 그린 제주도도가 이렇게 자세한 것은 이 지도뿐이다. 주변의 섬 명칭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 11. 동국팔역도 중 전라도 (全羅道 『東國八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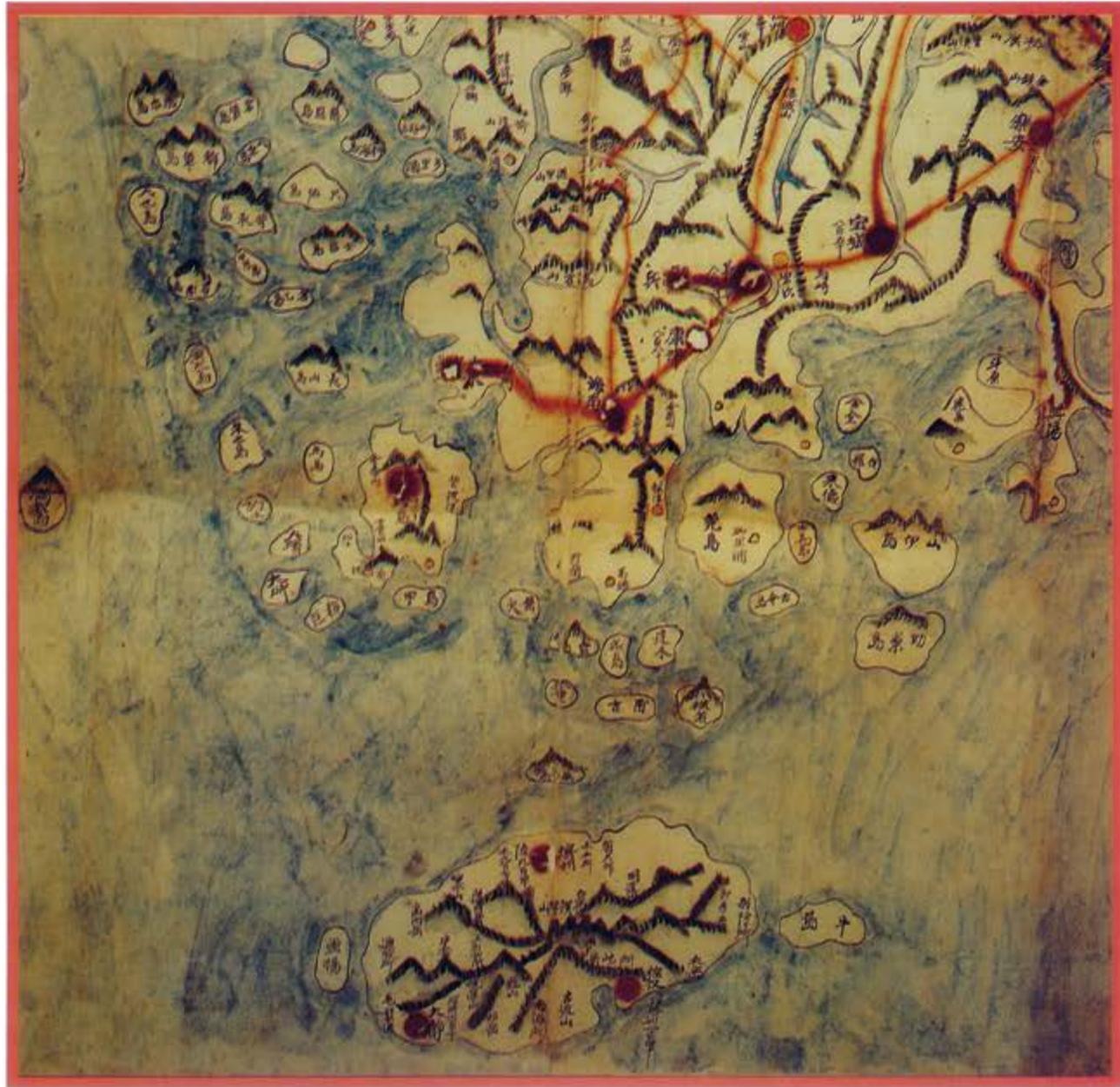
- 크 기 : 25.2 cm X 16.4 cm
- 제작시기 : 1767년 ~ 1776년
- 지도형태 :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정** 상기(鄭尙驥)의 8도분도를 모사한 지도이다. 정상기는 백리척(百里尺)의 발문(跋文)을 함경북도 지도에 기록해 놓았지만 이 지도에서는 경기도 충청합본 지도에 백리척을 그리고 발문(跋文)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제주도과 육지와와 거리를 수로 700리 혹은 970리로 적었으며 폭원은 400여리가 된다고 했다. 중요한 이름들을 그렸는데 다랑수악(多郎秀岳), 도내악(道內岳), 의악(衣岳), 서홀악(西屹岳) 등을 그렸다. 한라산에는 백록담도 그려져 있다. 명월소(明月所) 등 방호소를 모두 적고 있으며 조천관(朝天館)도 표시했다. 우도(牛島), 비양도(飛揚島), 추자도(楸子島) 등도 그렸다. 지도위의 주기 사항에서는 전라도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는데 제주도는 제주목사 1원과 관관 1원, 현감 2원의 관원이 있으며 폭원은 400여리로 기병이 891명이고 보병이 1,268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 지도는 경상도의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이 산청(山淸)과 안의(安義)로 바뀌었지만 충청도의 니산(尼山)과 평안도의 리산(理山)이 니성(尼城)과 초산(楚山)으로 바뀌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영조말엽(英祖末葉)인 1767년부터 정조(正祖) 즉위 초인 1776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인 듯 하다. 도로망과 하천 등이 잘 그려져 있으나 제주도에 그려져 있지 않다.

## 12. 팔로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八路地圖』)

- 크 기 : 24.9 cm X 16.1 cm (1첩)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1700**년대 후반에 제작된 『팔로지도』 중에 포함된 전라도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東國地圖』 유형의 지도이다. 『동국지도』는 정상기(鄭尙驥)가 18세기 중엽에 제작한 전국지도와 도별 지도로서, 당대에 국왕 영조(英祖)도 인정한 뛰어난 지도였다. 『동국지도』는 정확성, 백리척(百里尺)의 사용 등 지도 제작 기법의 개선, 분합식 지도와 같은 지도 형태와 제작 기법 등 여러 면에서 조선 후기의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지도로서, 우리나라 지도 발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가받는 지도이다.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 100여년 동안 『동국지도』는 주요 지도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모사본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도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지도에는 좌측 여백에 좌우도 소속 군현수와 역수(驛數)가 첨기되어 있다.



### 13. 팔도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八道地圖』)

- 크 기 : 99.5 cm X 59 cm (2책)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리표** 와 팔도지도의 2책으로 구성된 『팔도지도』 중의 전라도 지도. 경상도의 안음과 산음이 안의(安義)와 산청(山淸)으로 개칭된 1767년 이후, 충청도의 이산(尼山)이 옛 이름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1776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도 여백에 쓰인 지명은 1776년에 바뀐 평안도 초산(楚山), 충청도 이성(尼城) 등 18세기 후반 정조대(正祖代)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어, 주기(註記)는 지도 작성 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의 초기 지도를 모사한 지도이나 백리척(百里尺)과 발문(跋文)이 없다. 정상기 지도의 발문에는 오방색(五方色)을 써서 각 도의 지명을 나타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지도도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 지도의 군현명이 남쪽을 나타내는 적색으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도의 우측 상단 여백에 전라도 소속 군현수, 호수(戶數), 전답 면적, 각양곡(各樣穀), 제색군(諸色軍)을 기록하였고, 좌측 상단 여백에는 목사, 부사, 현령, 현감 순으로 각읍의 호수와 창(倉), 면(面)의 수를 기록하여 각 읍의 사정을 요약해 놓았다. 그러나 제주, 대정, 정의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

### 14. 팔도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八道地圖』)

- 크 기 : 100 cm X 64.4 cm (8軸)
- 제작시기 : 1790년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790년(正祖 14년)경에 그린 『팔도지도』 중 전라도 지도. 이 지도는 각 도가 1폭의 족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도의 함경북도 도폭에는 정상기의 발문과 더불어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쓴 기록이 쓰여 있어, 황윤석 집안에서 모사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연안의 섬들을 비교적 크게 그리고 섬의 이름을 써 넣었는데, 제주도의 우도와 비양도도 크게 그려져 있다. 추자도 옆에는 「제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 섬을 지난다. 바람이 좋으면 하룻만에 바다를 지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명월소(明月所) 좌측에도 「명월포는 원나라 때 바람을 기다리는 항구였으며, 7일 밤낮을 걸려 대양(大洋)을 건넜다」고 기록하여, 고려 말에 중국과의 통로가 되었던 포구였음을 알려 준다. 이들 기록은 읍지(邑誌)에 기재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육로와 수로(水路)를 모두 붉은 선으로 분명히 표시하였다.



## 15. 조선팔도여지전도 중 전라도 (全羅道 『朝鮮八道輿地全圖』)

- 크 기 : 42.5 cm X 30.5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중** 원도, 함경, 평안, 황해, 강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9종의 지도를 묶어놓은 지도이다. 경상도의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이 산청(山淸)과 안의(安義)로 바뀌기 전이지만 백두산에 경계비가 세워지고 북한산성이 수축된 점으로 미루어 숙종 ~ 영조년간에 제작된 지도인 듯하다. 영조 말엽 이후에 제작되는 8도본도는 거의 정상기(鄭尙驤)의 팔도본도를 모사하는데 이 지도는 그러한 영향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정상기 지도 이전에 제작된 지도이다. 서울로 올라가는 거리만 붉은 선으로 표기했고 각 군현은 좌도와 우도를 표시했으며 각 관원의 등급도 기록했다. 산맥은 연첩식으로 그렸으며 산성을 중히 여겨 그림을 그려 표시했다. 제주도 지도는 간략하게 제주, 대정, 정의현만을 적었고 한라산만 그려져 있다.

## 16. 해동여지전도 중 전라도 (全羅道 『海東輿地全圖』)

- 크 기 : 20.5 cm X 35.5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목판본
- 소 장 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천** 하도, 중국도, 전국총도, 8도도, 유구국도, 일본도 등 13종의 지도책으로 되어있는 전형적인 동람도(東覽圖)식 지도책이다. 이러한 지도책은 동람도를 본뜬 양식으로 필사본이나 목판본으로 민간에 널리 소장되어 있으며, 군현의 차례에 따른 군현명만을 수정하는 정도이다. 함경도에 무산부(茂山府)가 있고, 경상도의 산음과 안음이 그대로 있는 점으로 미루어 숙종(肅宗)과 영조(英祖)년간에 제작된 듯하다. 전라도 56개 군현이 좌도(左道)와 우도(右道) 어느쪽에 속하는지 나누어 적었고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와 각 군현의 별칭을 표기했으며 진산(鎭山)도 나타나 있다. 산맥이나 도로망 등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하천은 개략적으로 그렸다. 동람도와 같이 지면에 맞추어 전라도를 그렸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많게 네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정의, 대정 명칭만 적었고 한라산을 그렸으며 서울까지의 거리 일정을 각각 11日半이라고 표기했다.



## 17. 팔도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八道地圖』)

- 크 기 : 69.5 cm X 58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경기도를 비롯한 8도별로 그린 지도책이다. 전라도는 57개 군현으로 되어있는 사실과 전라도의 건치연혁(建治沿革)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을나(高乙那)·양을나(梁乙那)·부을나(夫乙那) 3인이 모흥혈(毛興穴)에서 용출(湧出)하여 건국하였으며 고후(高厚)·고청(高淸) 등이 신라에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로 사호(賜號)되었음도 적었으며 공민왕(恭愍王)때 원나라 관리들이 모반하자 최영을 파견하여 토벌한 기사도 적혀있고 조선 세조(世祖)때 제주목사를 두고 대정, 정의 두현을 설치했다고 적고 있다. 각 군현의 별칭과 진산(鎭山), 서울까지의 여정 등을 적었는데 제주는 11日 半이 걸린다고 기록했다. 한라산을 일명 영주(瀛州)라고 한다고 표시했다.

## 18. 해동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海東地圖』)

- 크 기 : 84.5 cm X 63.5 cm (1첩: 8절)
- 제작시기 : 18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00년대 전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 중의 전라도 지도. 팔도의 도별 지도로 구성되었으며, 백리척(百里尺)과 발문(跋文)이 있어 18세기의 유명한 지도학자 정상기(鄭尙驥, 1678 ~ 1752년)가 만든 『동국지도 東國地圖』를 모사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청도의 노성(魯城) 등 1800년에 개칭된 지명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영조대의 정상기 유형의 지도를 바탕으로 1800년대 이후에 전사하면서 일부 수정한 지도로 보인다. 정상기 유형의 지도와 다른 점은, 백리척·발문이 함경북도 도독이 아닌 해서(海西)지도에 쓰인 점, 지도 뒷면에 각 군현의 이름을 쓰고 군현의 별칭을 기록한 점, 지도의 여백에 각 도의 호수(戶數), 전결(田結), 좌우도의 소속 군현수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각 군현명 옆에 면수(面數)와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록하였고, 산천, 역원(驛院), 고개 등의 지명도 상세하게 기입하였다. 조천관 북쪽에 '水路 700里'라 기록하여 육지에서 거리 970리로 기록한 다른 지도들의 기록과 차이를 보인다.



## 19. 조선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朝鮮地圖』)

- 크 기 : 30 cm X 18.8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필사본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조선** 시대 민간이 소장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지도책이다. 첫번째 천하도, 두번째 중국도, 세번째 조선 전국도, 네번째 경기도 등의 8도 지도와 마지막에 유구국도(琉球國圖)와 일본도를 수록한 것을 비롯하여 13장으로 되어있다. 이 지도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동람도를 본따서 필사본이거나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민간에 널리 퍼진 지도로 내용은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수정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13장으로 되어서 지도책으로 되어있다. 전국의 330개 군현을 중점적으로 그렸으며, 각 군현의 진산(鎭山)과 관원의 등급, 서울까지의 일정, 각 군현간의 도로망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이 표시되었고, 제주목은 목사(牧使)이고 두 군현은 현감이 수령(首領)임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서울까지 일정이 제주목은 11日半, 대정현은 10日半, 정의현은 11日半 정도 걸린다고 적고 있으며, 전라도 해남과 뱃길이 연락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20. 해동여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海東輿地圖』)

- 크 기 : 101 cm X 57.5 cm
- 제작시기 : 18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조선** 전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등 9종의 지도로 된 지도책이다. 전라도 지도뿐 아니라 전라도 57군현간의 이정표를 자세히 그려놓아 여정을 알아보는 데 편하게 하였다. 각 군현간의 도로망과 진산(鎭山)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봉수를 중히 여겨 봉수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주기란에는 제주도의 내력을 자세히 적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 특산물 43종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 21. 동역도 중 전라도 (全羅道 『東域圖』)

- 크 기 : 74 cm X 72 cm (1첩:8절)
- 제작시기 : 18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00년대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역도』 중의 전라도 지도. 경기도의 시흥(始興)과 화성(華城), 1800년에 개칭된 충청도 노성(魯城)과 함경도 이원(利原)이 표기된 점으로 보아 19세기 전반의 지도로 보인다. 제주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린 지도가 아니므로 상세하지는 않다. 그러나 붉은색 실선으로 도로를, 흑색 점선으로 조천관(朝天館)과 연결되는 바닷길(海路)을 그렸으며, 제주도 남단에 죽도 등 여러 섬과, 주로 해안을 따라 위치하였던 봉수(烽燧)도 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도별 지도 중에 포함된 제주도 지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지도의 특징이다. 또한 전라도 연안 및 제주도 주위의 섬의 표시도 다른 지도에 비하여 많은 점도 주목된다.

## 22. 여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輿地圖』)

- 크 기 : 75 cm X 65 cm (1첩:13절)
- 제작시기 : 18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00년대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첩 『여지도』 중에 포함된 전라도 지도. 1800년에 개칭된 함경도 이원(利原) 등의 지명이 나타나 있고, 1822년에 신설된 함경도 후주(厚州)가 표시되지 않아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섬을 황색으로 채색하여 육지와 구분하고, 청색으로 채색한 바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추자도는 황색으로 채색하지 않았으며, 제주도 외에 우도, 비양도 등 부속 도서를 전혀 그리지 않았다. 산지를 황갈색으로 채색한 점도 독특하다. 제주도 우측에 백리척(百里尺)을 가로로 표시하여 백리 및 십리의 거리를 쉽게 지도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도의 축척도 나타냈다. 바닷길(海路)이 붉은선으로 굵게 그려져 있는데, 진도 금갑진(金甲鎭)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남 쪽으로 바닷길을 그린 다른 지도들과 차이를 보인다. 명월소(明月所) 동측 산간지대에 삼별초(三別抄), 서귀소(西歸所) 서측에 천지연(天池淵) 등 유적과 명승도 일부 표시되어 있다.



## 23. 여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輿地圖』)

- 크 기 : 31.3cm X 25.1cm
- 제작시기 : 1800년대 중엽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여지도** 라는 지도책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동람도(東覽圖) 형식을 본따서 조선시대 민간인들이 소지할 수 있었던 지도책이다. 이 책은 천하총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도, 조선총도, 8도 등 13종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필사본과 목판본의 두가지가 있는데 그때그때 군현(君縣) 사정이 달라진 것 등을 반영하여 제작하거나 필사하였다. 이 여지도는 각 도를 그리고 그도에 해당하는 여러 사항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지리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편찬한 지도책이다. 후기 사항을 참고하면 순종(純宗)까지 기록하고 금상전하(今上展下)라고 쓴 점으로 미루어 현종(憲宗, 1835~1848년)때 이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도 형태나 제작방법 등은 동람도(東覽圖)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지도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각 군현의 진산(鎭山) 정도만 표시했기 때문에 지도의 내용이 단조롭다. 제주도의 기병이 891명이고 보병이 1,268명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동국팔역도에도 적혀있는 내용이므로 앞서 제작된 지도 내용을 그대로 전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4. 동국여도 중 호남도 (湖南圖 『東國輿圖』)

- 크 기 : 47.5cm X 67cm (1첩:16절)
- 제작시기 : 1800년대 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00**년대 전반에 제작된 『동국여도』 중에 포함된 전라도지도, 제주도 지역은 1895년~1896년의 지방제도개정으로 23부제를 실시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1946년에 도로 승격하여 독립하기 전까지 전라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별지도의 경우 전라도지도에 제주도 지역이 그려져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유행하였던 크기가 작은 지도책에는 군현의 위치와 이름만 표시한 간략한 형태의 전국지도와 팔도의 도별지도를 수록한 것이 많았다. 『동국여도』도 그와 같은 유형인데, 산줄기의 흐름, 도로 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나타냈으며, 서울·강화·남한산성·경강부임진도(京江附臨津圖) 등의 지도도 포함하고 있는 지도책이다. 책의 크기에 맞추어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전라도의 형태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되었으며, 제주도도 전라도 해안에 바짝 붙여 그렸다. 군현명을 황색 원 안에 기록하였으며, 군현명 옆에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록하였는데, 제주도 군현에는 거리 기록이 없다.



## 25. 아동여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我東輿地圖』)

- 크 기 : 32.8 cm X 19.6 cm
- 제작시기 : 1800년대
- 지도형태 :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이 지도는 조선전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도 등 5종의 지도를 묶어는 지도책이다. 황해, 평안, 함경도가 없는 것은 결본된 듯하다. 정상기(鄭尙驥)의 팔도분도를 모사한 지도로 평안도의 리산(理山)이 초산(楚山)으로 함경도의 이성(利城)이 이원(利原)으로, 충청도의 니성(尼城)이 노성(魯城)으로 바뀐 점으로 미루어 순조이후에 제작된 지도인 듯하다. 제주도는 전라도 지도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교적 자세하여 방호소 8곳, 의악(衣岳), 우수악(牛水岳), 한라산, 백록담(白鹿潭), 조천관(朝天館)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산맥은 연결식으로 되어있고 해남과의 수로(水路)가 그려져 있고, 수로가 700여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 26. 조선팔역도 (朝鮮八域圖)

- 크 기 : 245 cm X 138 cm
- 제작시기 : 18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순조 연간(純祖年間)에 제작된 대형의 우리나라 전도이다. 산맥과 하천과 도로망 등이 태동여지도에 비금갈 정도로 자세한 지도이다. 간선도로망은 굵은 붉은선으로 표시하였다. 산성(山城), 창고 등도 자세하게 그렸으며 특히 산맥을 자세히 그렸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들이 그려져 있으면서 폭원이 400여리로 기록되어 있다. 화북소(禾北所), 모슬소(毛瑟所) 등의 방호소(防護所)와 도내악(道內岳), 다랑수악(多郎秀岳) 등의 오름과 명도산(明道山), 구산(龜山) 등의 산명이 있으며 한라산과 백록담도 그렸고 우수산(牛首山) 옆에는 삼별초소라고 삼별초가 활동했던 유적지를 표시해 놓았다.



## 27. 동국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東國地圖』)

- 크 기 : 83.5cm X 58cm
- 제작시기 : 18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중**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9종의 지도를 합본해 놓았다. 이 지도는 충청도 니성(尼城)이 노성(魯城)으로 바뀌고 함경도의 이성(利城)이 이원(利原)으로 바뀌었지만 후주부(厚州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순조년간에 제작된 듯하다. 지도의 형태는 정상기의 8도본도를 모사하였는데 함경북도에 정상기(鄭尙驥)의 발문(跋文)이 없고 충도에 백리척만 표기해 놓았다. 지도의 내용은 각 군현간의 도로망이 잘 표시되어 있고 산맥은 연첩식이며 하천은 쌍선으로 그려져 있어 저명한 지형지물과 산성도 잘 나타나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 정의, 대정현간의 도로가 그려져 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맥이 연첩식으로 그려져 있으며 의악(衣岳), 우수악(牛水岳), 소흘악(所訖岳)과 명도산(明道山), 귀산(龜山) 등이 표기되었고 별방소(別防所), 명월소(明月所), 화북소(禾北所) 등의 방호소가 명기되어 있다. 수로(水路) 700리도 적혀있다.

## 28. 접역지도 중 전라도 (全羅道 『蝶域地圖』)

- 크 기 : 29cm X 19cm
- 제작시기 : 18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인쇄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접**역지도는 한양경성도, 경성부근지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등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도책이다. 맨 먼저 수록되어 있는 한양 경성도(京城圖)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공사관 등 각국의 공사관이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지도는 19세기후반에 제작된 듯 하다. 산맥표시도 우리 나라 고지도는 연첩식인데 비하여 우모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경성(京城)이라는 명칭을 쓴 점으로 미루어 이 지도는 일본에서 제작된 듯 하다. 전라도도를 살펴보면 좌도(左道) 22읍과 우도(右道) 34읍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군현간의 도로망이 잘 표시되어 있다. 각 군현간의 진산(鎭山)과 각 군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제주목에서 서울까지는 1,800리로 적혀 있으며 한라산과 산방산(山房山), 그리고 명월포(明月浦)정도만 개략적으로 그려져 있다.



## 29. 팔도도 중 전라도 (全羅道 『八道圖』)

- 크 기 : 34.5cm x 28cm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흑백 목판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박물관

이 지도는 천하도, 중국도, 일본도, 유구국도와 함께 동국팔도대총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13첩으로 되어 있다. 목판본으로 찍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목판을 조금씩 수정하여 다시 찍어 냈고 민간인이 널리 소장하고 있는 지도책으로 대개 "여지도"라고 부른다. 이러한 목판본을 필사한 필사본도 민간인이 많이 소장하고 있다. 경상도계를 설명하면서 무주 지방이 안의현과 접경하였다고 설명한 점으로 미루어 1700년대 후반에 제작된 지도인 듯 하다. 전라도 각 군현의 진산을 반드시 명기하였다. 제주지방은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한라산만을 간략하게 표기했으며 아래 부기란에는 제주도가 고씨, 부씨, 양씨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한라산의 북쪽은 늘 북풍이 불어와 나무가 휘어져 있으며 그 남쪽에는 바람이 없지만 대신 안개가 많다고 하였다. 여우나 토끼, 또는 나쁜 짐승이 없으며 기이한 새들이 많다고 하였다. 멀리 남쪽으로는 유구가 보인다고 하였다.

## 30. 고지도의 팔도도 중 전라도 (全羅道 『古地圖 <八道圖>』)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박물관

전 국 8도도 중 전라도 지도이며 그 중 제주도 부분만을 나타낸 고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각 군현간의 일정이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낙안에서 순천까지는 40리이고, 낙안에서 화순까지는 70리이고, 낙안에서 홍양까지는 90리, 낙안에서 보성까지는 60리라고 일일이 자세하게 적어 놓았다. 그 외에 벽사, 경양 등 역의 모습을 표시했으며 금성산성, 교룡산성 등 국방으로 중요한 지역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다. 제주도 지방에는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까지의 도로망과 별방소, 화북소 등 각 군현과 9개의 방호소와의 도로를 적색으로 잘 표시하였다.



### 31. 전 남 도 ( 全 南 圖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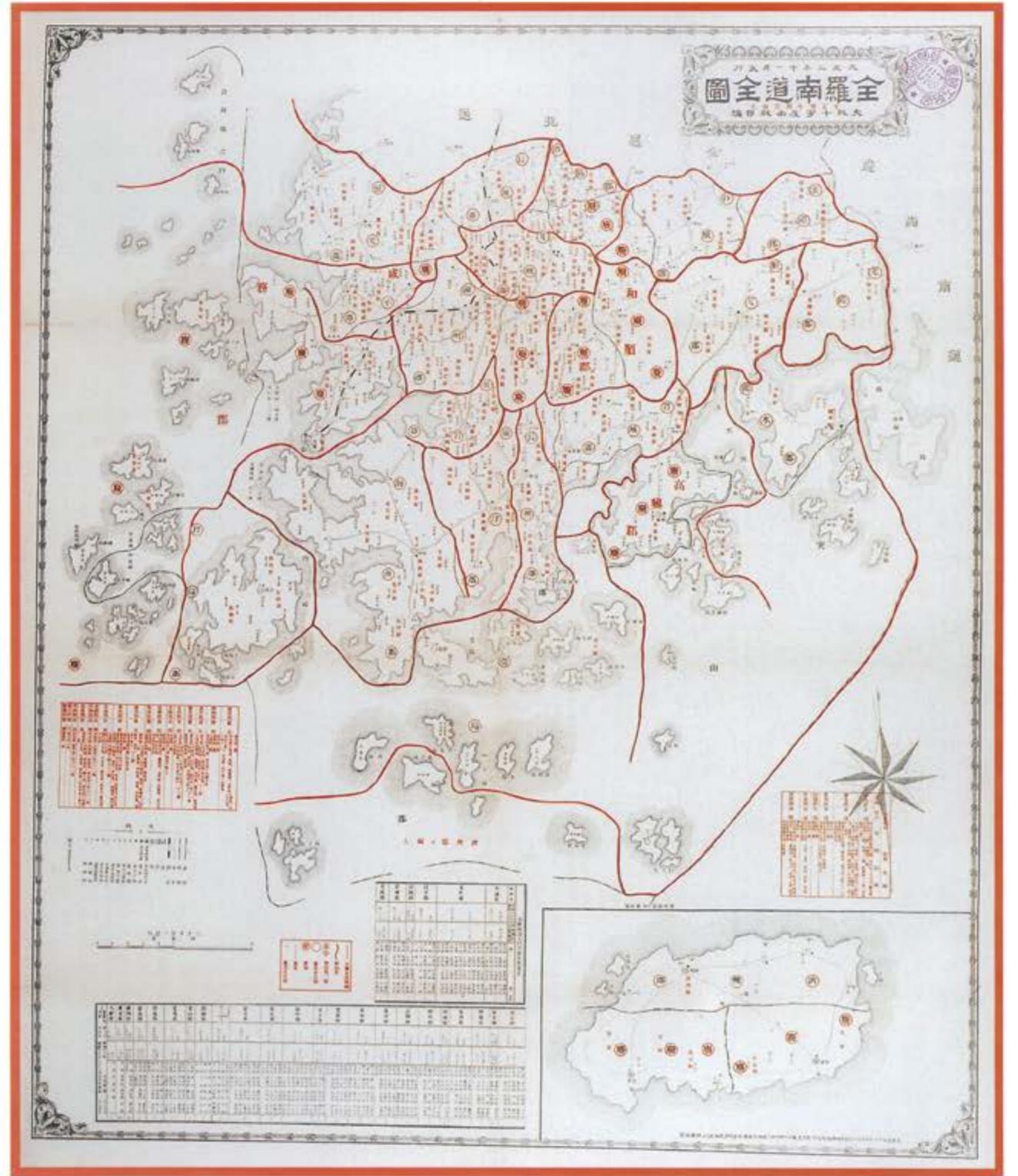
- 제작시기 : 1700년대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박물관

이 지도에는 각 군현간의 도로망이 적색으로 잘 표시되어 있다. 산맥은 중첩식으로 연결하여 그렸으며 주변의 섬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리고 섬 이름까지 자세하게 적었다. 제주도 지방은 다른 지도와 달리 연첩식 산맥으로 그렸다. 대부분의 지도들이 330여개의 오름 중 중요한 오름만을 개별적으로 그린 것과 달리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맥식으로 그렸다. 이것은 제주도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 9개의 방호소는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우수약 부근에 삼별초의 근거지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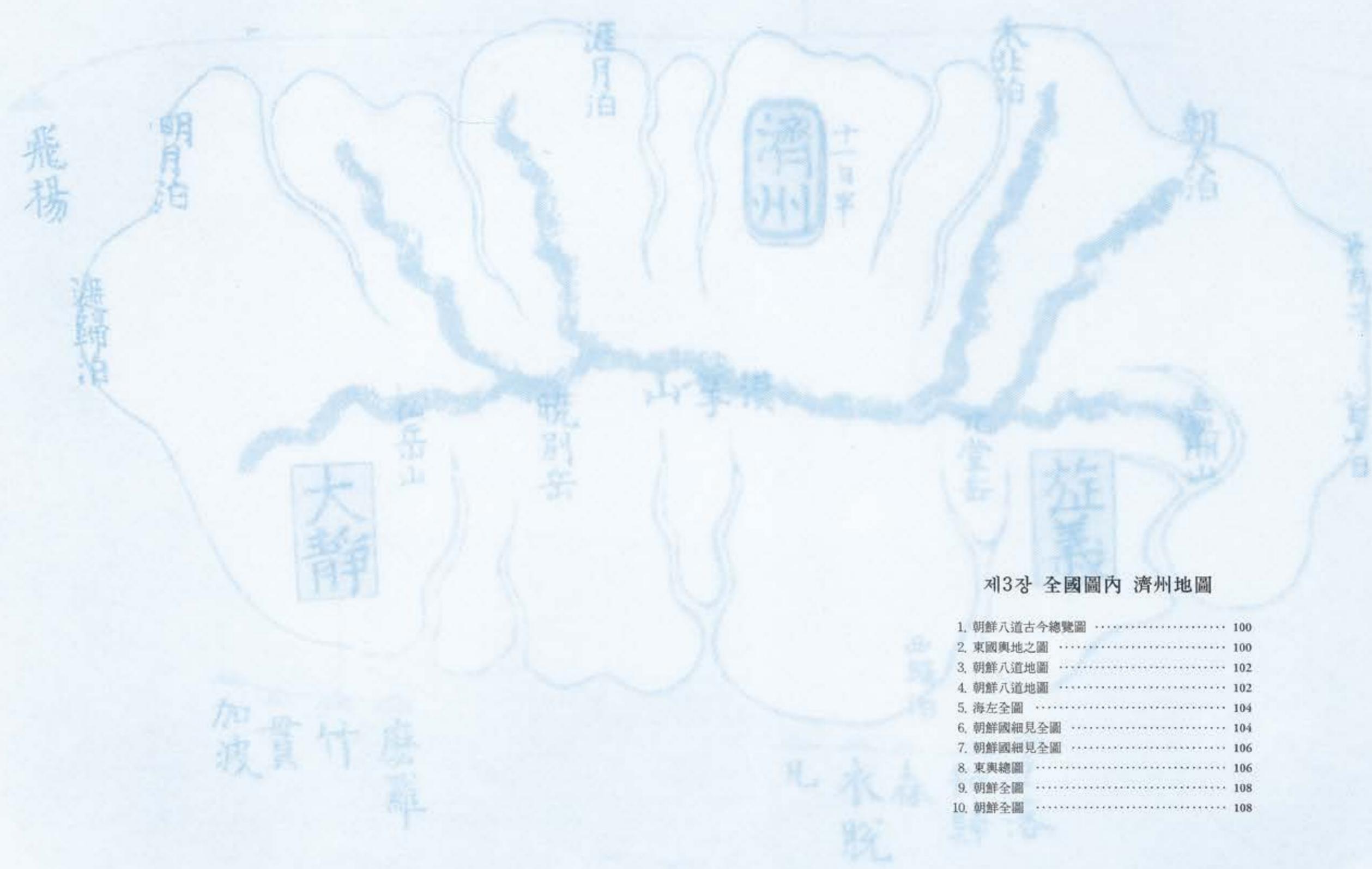
### 32. 전라남도전도 ( 全 羅 南 道 全 圖 )

- 크 기 : 96.5 cm x 78.9 cm
- 제작시기 : 1913년
- 지도형태 : 채색 인쇄본
- 소 장 처 : 영남대학교 박물관

제주도에는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의 3개 행정구역인데 대한제국기에 제주목을 제주군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5개 면을 두었으며 정의현은 정의군으로 바뀌고 4개면을 설치했으며 대정현도 대정군으로 바뀌고 3개면을 두었다. 1914년 일제가 전국을 측량하고 모든 행정구역을 바꾸었는데 제주도에 는 제주군만 두고 대정군과 정의군을 폐지하여 그 예하에 13개면을 두게 된다. 이 지도는 그 전 단계로 대정군과 정의군을 폐지하고 제주군 아래 제주면, 우면, 신우면, 구좌면, 좌면 등의 행정구역만 표기하고 있는 현대지도이다. 전통지도에는 반드시 표기되어 있는 목장, 봉수, 과원, 방호소 등의 표기가 전혀 없으며 선박이 접안 가능한 명월소 등을 표시해 놓았다. 이 지도는 전통지도에서 현대지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지도이다. 즉, 오름 등의 표시도 없지만 현대적 측량에 의한 등고선의 표시도 없으며 지도에 담고 있는 내용도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







제3장 全國圖內 濟州地圖

1. 朝鮮八道古今總覽圖 .....	100
2. 東國輿地之圖 .....	100
3. 朝鮮八道地圖 .....	102
4. 朝鮮八道地圖 .....	102
5. 海左全圖 .....	104
6. 朝鮮國細見全圖 .....	104
7. 朝鮮國細見全圖 .....	106
8. 東輿總圖 .....	106
9. 朝鮮全圖 .....	108
10. 朝鮮全圖 .....	108

## 1. 조선팔도고금총람도 (朝鮮八道古今總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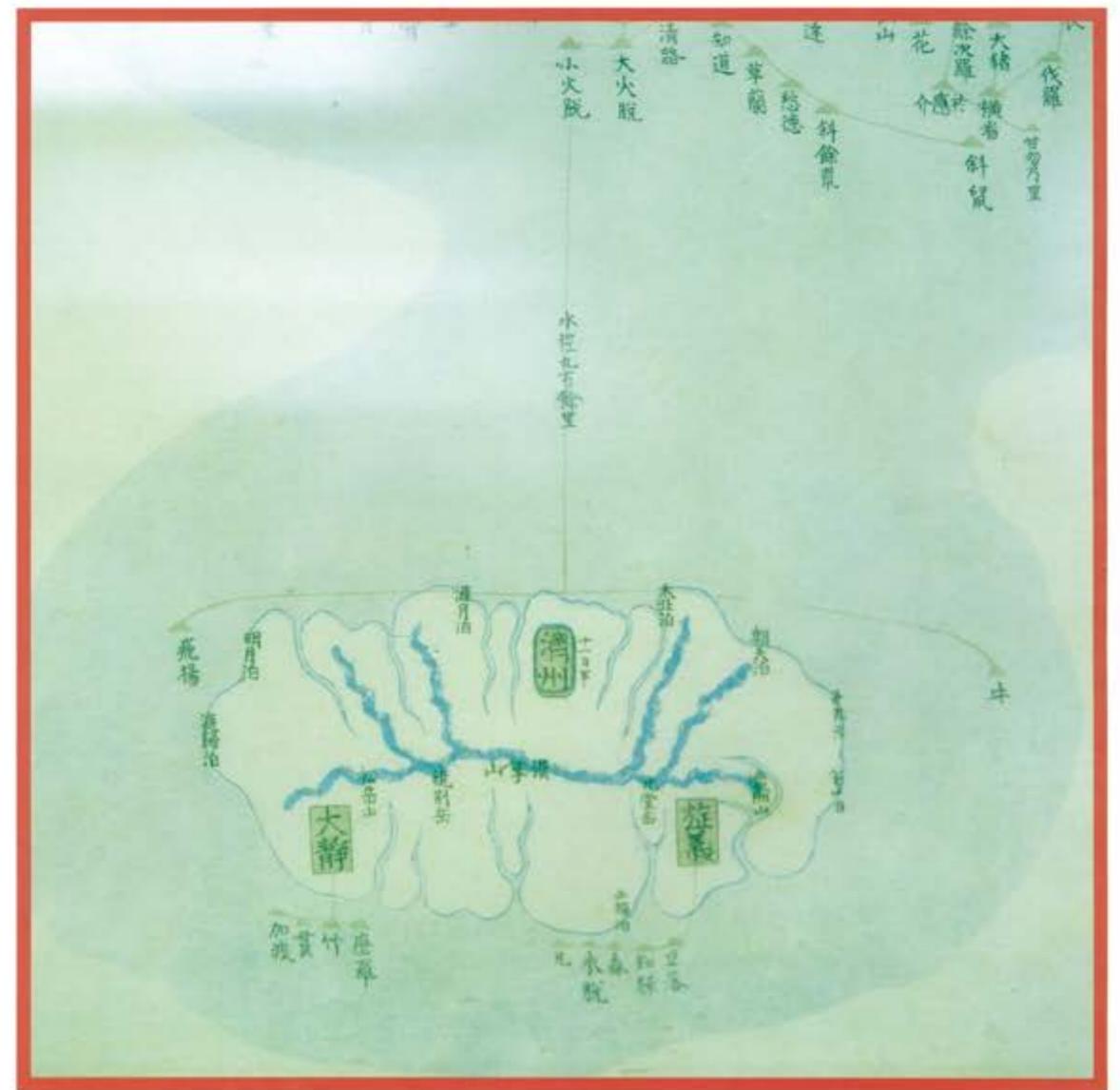
- 크 기 : 127.5 cm x 88.4 cm
- 제작시기 : 1673년
- 지도형태 : 목판본
- 제 작 : 김 수 홍(金壽弘)
- 소 장 처 : 허 영 환 개인소장

**김**수홍(1601-1681년)은 병자호란때 강화성에서 순절한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며 호조참판을 지냈고 현종 7년(1666년)에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지도의 작성연대는 지도 좌측에 쓰여있는 발문의 끝부분에 계축맹하(癸丑孟夏)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간지는 현종14년(1673)이 된다. 지도의 윤곽은 조선 전기의 유형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동서로 일직선상에 있고 전체적으로 남북이 압축되고 동서의 폭이 실제보다 넓게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수 많은 유적과 사당이 파괴되고 기록들이 없어져 그 지방의 명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겨 작성한 지도이다. 제주도의 호자 김평(金枰)과 고조기(高兆基)등이 기록되어 있고 한라산의 눈과 얼음이 여름에도 녹지 않음을 적었고 고(高)·양(梁)·부(夫) 삼성(三姓)의 출혈(出穴)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지도이다.

## 2. 동국여지지도 (東國輿之地圖)

- 크 기 : 112 cm x 72.5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중엽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녹우당 (윤선도 기념관)

**국**보 248호인 조선 방역도와 비슷한 유형의 지도로 산맥, 하천, 교통로 등의 표기가 자세하며 서울까지의 여정을 기록했다. 관등급을 유형화하여 지도표를 만들어 표기한 점이 특이하며 화가가 그려졌기 때문에 섬세하고 채색이 아름답다. 뱃길 표시가 자세한 지도로 제주도에서 전라도 해남까지 뱃길(水程)이 900여리라고 표기했으며 우도(牛島)와 비양도(飛揚島)까지의 뱃길도 잘 그려져 있다. 산과 하천 등은 개략적으로 그렸고 효별악(曉別岳), 원당악(元堂岳)과 송악산, 한라산, 영산 정도만 표기했다. 8개의 방호소를 소(所)라고 하지 않고 박(泊)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 특이한데 서귀박(西歸泊), 차귀박(遮歸泊), 명월박(明月泊), 조천박(朝天泊), 화북박(禾北泊) 등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 남쪽의 섬들을 거리에 관계없이 일렬로 가지런히 몰아서 그려놓았다. 목장, 과원, 행정촌, 연대 등의 명칭도 전혀 표시되지 않은 개략적인 지도이다.



### 3.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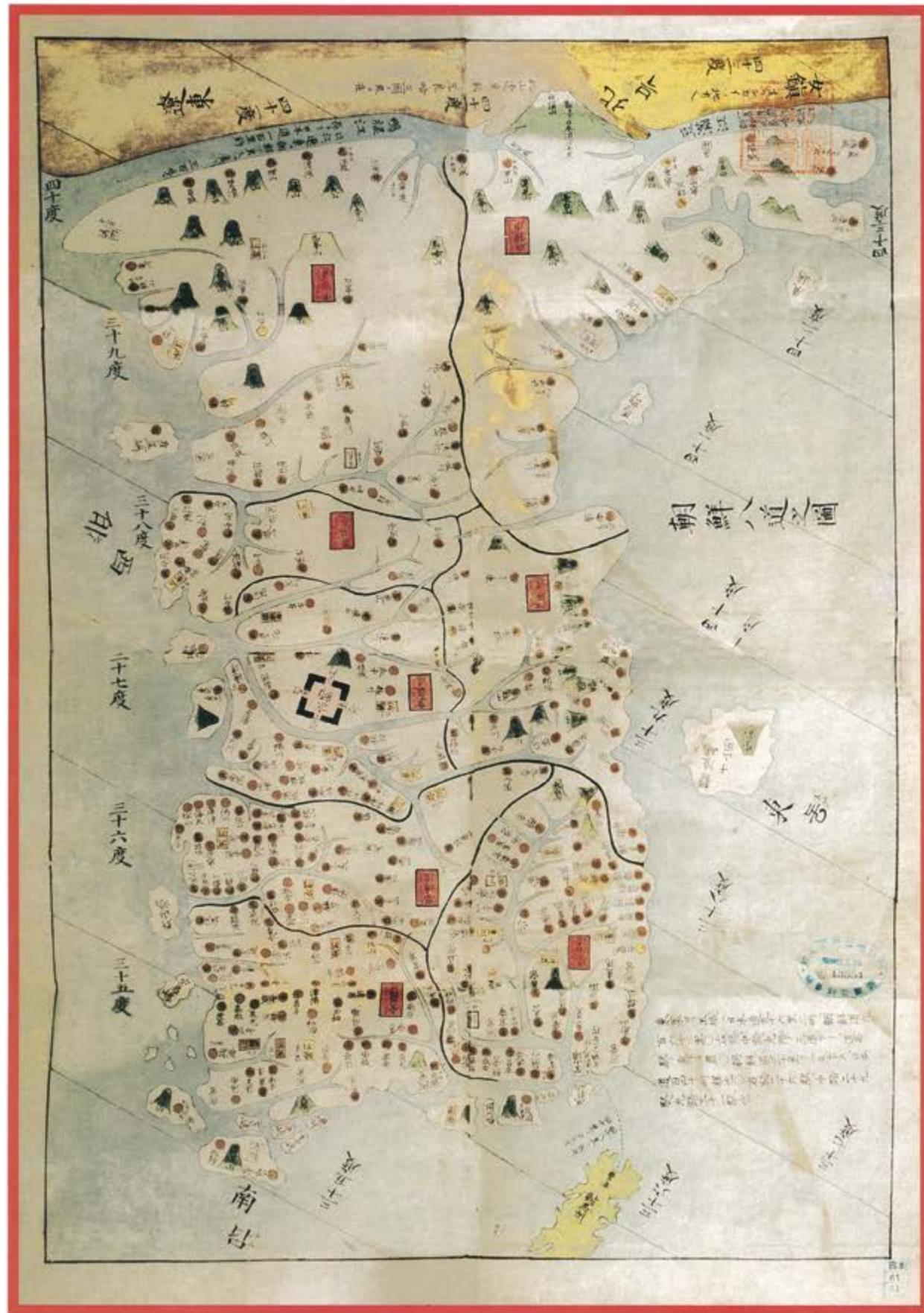
- 크 기 : 77 cm X 53.5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제 작 : 임 자 평(林子平)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이 지도는 일본의 임자평(1737~1793년)이 그린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設)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선 8도지도이다. 그의 본성(本姓)은 월지(越智)이고 이름은 우직(友直)이며 자(字)가 자평(子平)이고 호(號)는 육무제(六無齊)였다. 쇄국정책을 추진하던 도쿠가와막부에서는 그가 국가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금고에 처했었다. 그는 사서(史書)에 널리 능통하여 천하의 경륜을 갖고 있었으며 삼국통람도라는 지도책속에 일본도, 중국도, 유구국도 등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조선 8도 지도는 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지도를 기초로 하여 경위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렸는데 북위 35°부터 43°까지 우리나라를 위도로 구분한 점이 특이하다. 제주도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그리고 한라산만을 표기하고 있으며 이 지도는 파리에 전해져 우리나라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읽고 표기는 불어로 표기한 지도도 있다. 제주를 Tsicheou, 정의현이 Tingi로 표기되어 있다.

### 4.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 크 기 : 106 cm X 64.5 cm
- 제작시기 : 1700년대 후반
- 지도형태 : 채색 필사본
- 소 장 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정 상기의 팔도본도를 모사(模寫)한 지도인데 정상기(鄭尙驥)의 발문(跋文)과 백리척(百里尺)의 표시도 없고 모사한 흔적도 거칠다. 전라 좌도(左道)는 붉은색으로 전라 우도(右道)는 노란색으로 군현을 나타내고 각 군현간의 도로망이 잘 나타나 있다. 산맥은 연첩식이며 하천은 쌍선으로 그렸고 저명한 지형지물도 모두 표기했다. 제주도는 산맥을 연첩식으로 그렸고 하천은 쌍선으로 표기했으며 화북소(禾北所), 명월소(明月所), 별방소(別防所) 등의 방호소는 모두 표기했으며 다랑수악(多郎秀岳), 우수악(牛水岳), 도내악(道內岳) 등이 주요 오름도 표기해 놓았다. 지도의 크기에 비하면 지도 표기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 5. 해좌전도 (海左全圖)

- 크 기 : 87 cm X 39.5 cm
- 제작시기 : 1857년 ~ 1866년
- 지도형태 : 목판본
- 소장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해좌전도는 목판본이기 때문에 도서관, 박물관 뿐 아니라 현재 민간인들도 널리 소유하고 있는 고지도이다. 해좌(海左)라는 뜻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기준으로 볼때 황해 좌측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며 해동(海東)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널리 쓰였다. 이 지도는 지도뿐만 아니라 여백에 지리지(地理志)에 관한 사항과 역사에 관한 사항을 빽빽이 주기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는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천을 설명하면서 함경도 후주부(厚州府)가 순조(純祖) 때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순종(純宗)이라는 묘호대신에 순조라는 묘호(廟號)는 1857년(哲宗 8년)이후부터 사용한 묘호이므로 이 지도는 그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김정호(金正浩)가 활동하던 시기였으므로 이 지도도 그가 관각했거나 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지도는 개략적으로 그렸지만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도 특산물을 43종을 일일이 열거해 놓은 점이 특이하며 많은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 6. 조선국세견전도 (朝鮮國細見全圖)

- 크 기 : 99.7 cm X 71.8 cm
- 제작시기 : 1873년 (明治 6년)
- 지도형태 : 인쇄본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1873년(明治 6년)에 일본 동경에서 염기연방(染崎延房)이 편집하고 석총영제(石塚寧齊)가 그린 지도이다. 전라도의 능주(綾州)가 능성으로 되어 있고 충청도의 해미(海美)에 병영이 있으며 경상도에 칠곡(漆谷)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임란이전에 제작된 조선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편집한 지도인 듯하다. 만주지방까지 포함하여 그린 국보 248호인 조선방역도와 똑같은 형태의 지도를 저본으로 편찬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산맥과 하천과 도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각 군현의 담당 행정관의 명칭을 표기해 놓았다. 예를들면 제주도에 목사와 판관이 있으며 정의현과 대정현에는 현감이란 관원을 두었음을 적고 있다. 제주도의 동서길이가 7식(息)이고 남북의 길이는 3식(息)이라고 적고 있으며 제주목에서 대정현까지는 3식(息)이고 정의현까지는 2식이라고 적고 있다. 우도(牛島), 죽도(竹島), 양도(楊島)등이 있고 월포(月浦), 모슬포(毛瑟浦), 별자포(別自浦) 등을 표기했으며 명월방호소를 그렸다. 한라산과 토산(兔山)도 표기했고 하천과 도로 표시는 없으며 산맥만 개략적으로 그렸다.



## 7. 조선국세견전도 (朝鮮國細見全圖)

- 크 기 : 99.7 cm X 71.8 cm
- 제작시기 : 1874년 (明治 7년)
- 지도형태 : 인쇄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이 지도는 조선국세견전도와 마찬가지로 국보 248호인 조선방역도류의 조선지도를 저본으로 일본에서 모사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산맥과 하천이 자세하게 그려졌으며 전국 8도의 330여개의 군현을 원으로 둘러싸 표기했는데 경기와 충청도는 노랑색, 전라도는 붉은색, 경상도는 청색, 강원도는 회색, 평안도는 분홍색, 함경도는 녹색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제주도는 목장, 과원 등의 표기도 없고 하천과 도로 표시도 없으며 산맥만 개략적으로 그렸고 방호소만 표기 했다.

## 8. 동 여 총 도 (東興總圖)

- 크 기 : 98 cm X 56.5 cm
- 제작시기 : 1800년대
- 지도형태 : 목판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해 좌전도와 아주 흡사한 지도로 이 지도를 저본으로 제작된 듯하다. 평안도의 리산(理山)이 초산(楚山)으로 함경도의 이성(利城)이 이원(利原)으로 바뀌어 표기되어 있으며 후주(厚州)가 설치된 점을 참고해 보면 이 지도는 1882년(純祖 22년)이후에 제작된 듯하다. 목판본이기 때문에 여러곳에 소장되어 있어야 하나 다른 소장처는 별로 눈에 띄지않는다. 산맥은 증첩식으로, 하천은 쌍선으로 묘사되어 있고 각 군현간의 도로도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위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점인데 경위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경위선이 그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서울을 지나는 경위선을 중선(中線)이라고 적고 있다. 제주도 지도에는 제주, 대정, 정의의 3현만을 개략적으로 표기하였으며 한라산과 우도만 그려져 있을 뿐이다.



## 9. 조선전도 중 제주부분 (朝鮮全圖)

- 크 기 : 131.4cm X 94.2cm
- 제작시기 : 1894년
- 지도형태 : 인쇄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1876년(明治 9年)에 일본의 육군문고에서 출판한 지도를 저본으로 사용하여 1894년(明治 27年)에 발간된 현대식 측량에 의해서 경위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조선 8도전도와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청일통도(大清日通圖)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이 만든 해도(海圖) 등을 종합하여 제작한 지도이다. 지명은 일본인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지명을 한문으로 표기하고 그 옆에 일본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함경도 모씨의 자문을 얻어 제작했다고 범례에서 밝히고 있다. 비양도(飛揚島)를 양도(揚島)로 잘못 적고 있으며 판포(板浦) 등을 표시했다.

## 10. 조선전도 (朝鮮全圖)

- 크 기 : 82.5cm X 54.2cm
- 제작시기 : 1894년 (明治 27年)
- 지도형태 : 인쇄본
- 소 장 처 : 국립중앙도서관

강 원도가 정확히 기록된 현대식 측량에 의해서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이다. 1875년(明治 8年)에 일본의 육군참모국에서 제작 출판한 지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비밀리에 측량기사 등을 파견하여 전국을 부분적으로 측량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도를 제작했었다.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이므로 산맥 표기가 우리나라의 연침식이 아니라 우모식으로 되어있고 도로는 간선도로만 표시되어 있다. 하천은 측량에 의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우도(牛島), 한라산, 모슬포(毛瑟浦), 세곳(細串), 여로(余路) 등만이 나타나 있다.







#### 제4장 西洋地圖 및 現代式地圖

1. 日本地圖	112
2. 日本地圖	112
3. 朝鮮地圖	114
4. 동아시아지도	114
5. 濟州地圖	116
6. 제주도의 학교분포지도	123
7. 濟州島管内圖	124
8. 제주도관광안내지도	125
9. 濟州道文化遺跡地圖	126

## 1. 일 본 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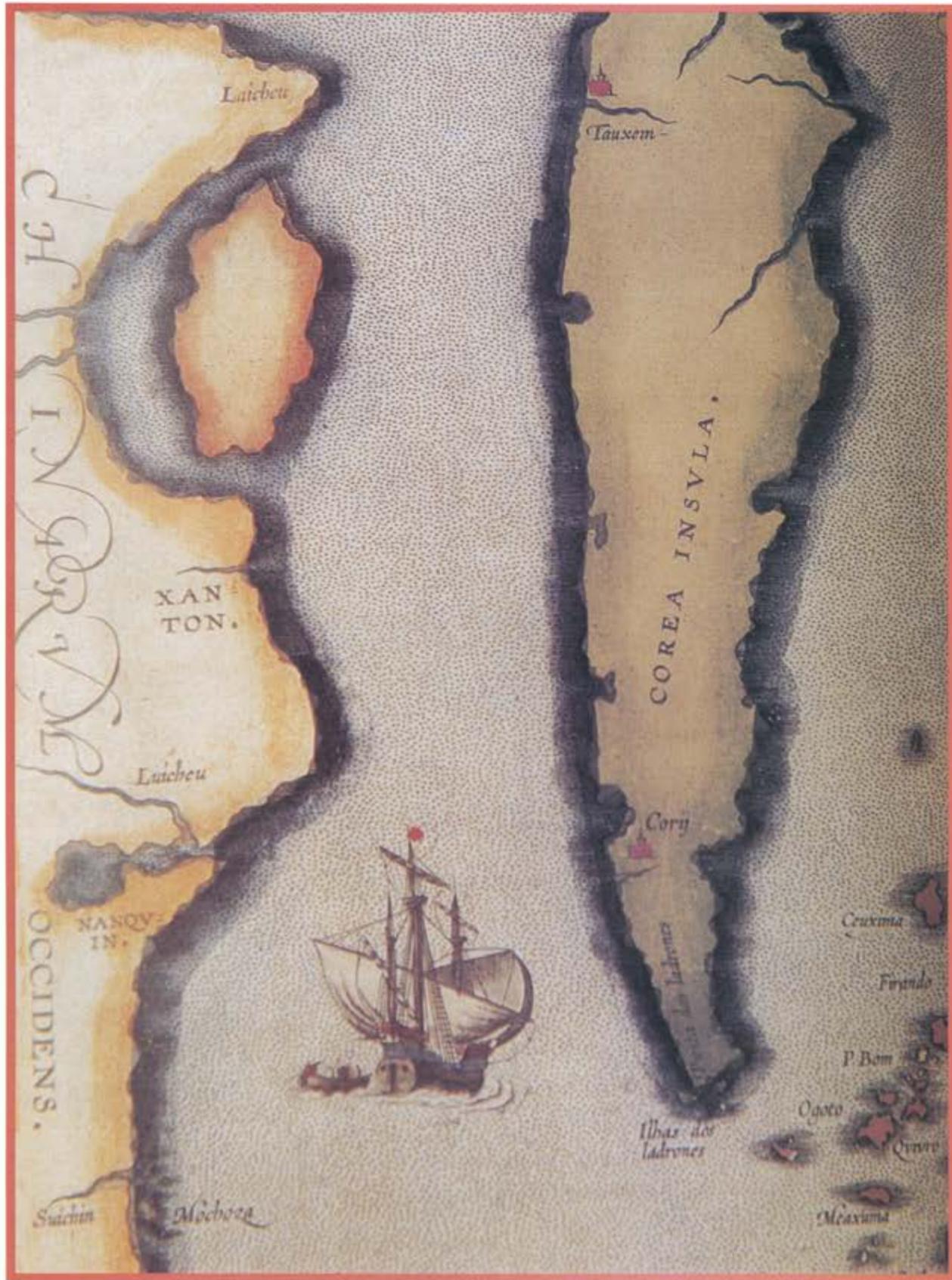
- 크 기 : 48.5cm x 35.5 cm
- 제작시기 : 1595년
- 지도형태 : 인쇄본
- 제 작 : 테이세라(Teixeira)
-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이** 지도는 포르투갈의 제주이트 교단의 수학자인 테이세라가 제작하여 1592년에 스페인의 왕실지도 제작자인 오르테리우스에게 보내지며 오르테리우스는 이 지도를 지구의 무대(地球의 舞臺)라는 지도책 속에 포함시켜 1595년 출간된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한국은 반도로 그려져서 조선반도(Corea Insvia)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도적섬(Ilhas das ladranes)으로 적혀있다. 어떤 이유에서 제주도를 도적섬으로 표기했는지는 그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오래된 서양지도 일수록 제주도를 도적섬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신라 장보고(張保皋)의 해상활동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장보고는 9세기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곳을 지나가는 배들은 장보고에게 통행세를 내야만 항해할 수 있었다. 만약 통행세를 내지않을 경우에는 전제산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곳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와같은 사정이 와전되어 도적섬으로 불리워진 듯하다.

## 2. 일 본 지 도

- 크 기 : 61 cm x 41.5 cm
- 제작시기 : 1655년
- 지도형태 : 인쇄본
- 제 작 : 마르티니(Martini)
-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마**르티니(1614-1661년)는 1643년부터 1650년까지 중국에서 천주교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신중국지도장(新中國地圖帳)이란 지도책을 제작하였고 일본도는 그 중에 하나이다. 그는 일본에 가본적이 없으나 중국에서 일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 지도를 작성한 듯하다. 실제로 이 지도는 모레이라와 안센 등이 그린 일본지도를 결합한 듯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 한국은 조선반도(COREA PENINSVIA)로 그려져 있고 제주도는 풍마(Fungma)로 표기되어 있다. 풍마란 중국에서 제주도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뜻은 정확하지 않지만 바람과 말이 많은 곳이란 뜻하며, 또 다른 해석은 "사나운 말"을 기르는 곳이란 뜻이다. 어느 경우이든 제주도에는 말이 많아 길러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다.



### 3. 조선지도 (朝鮮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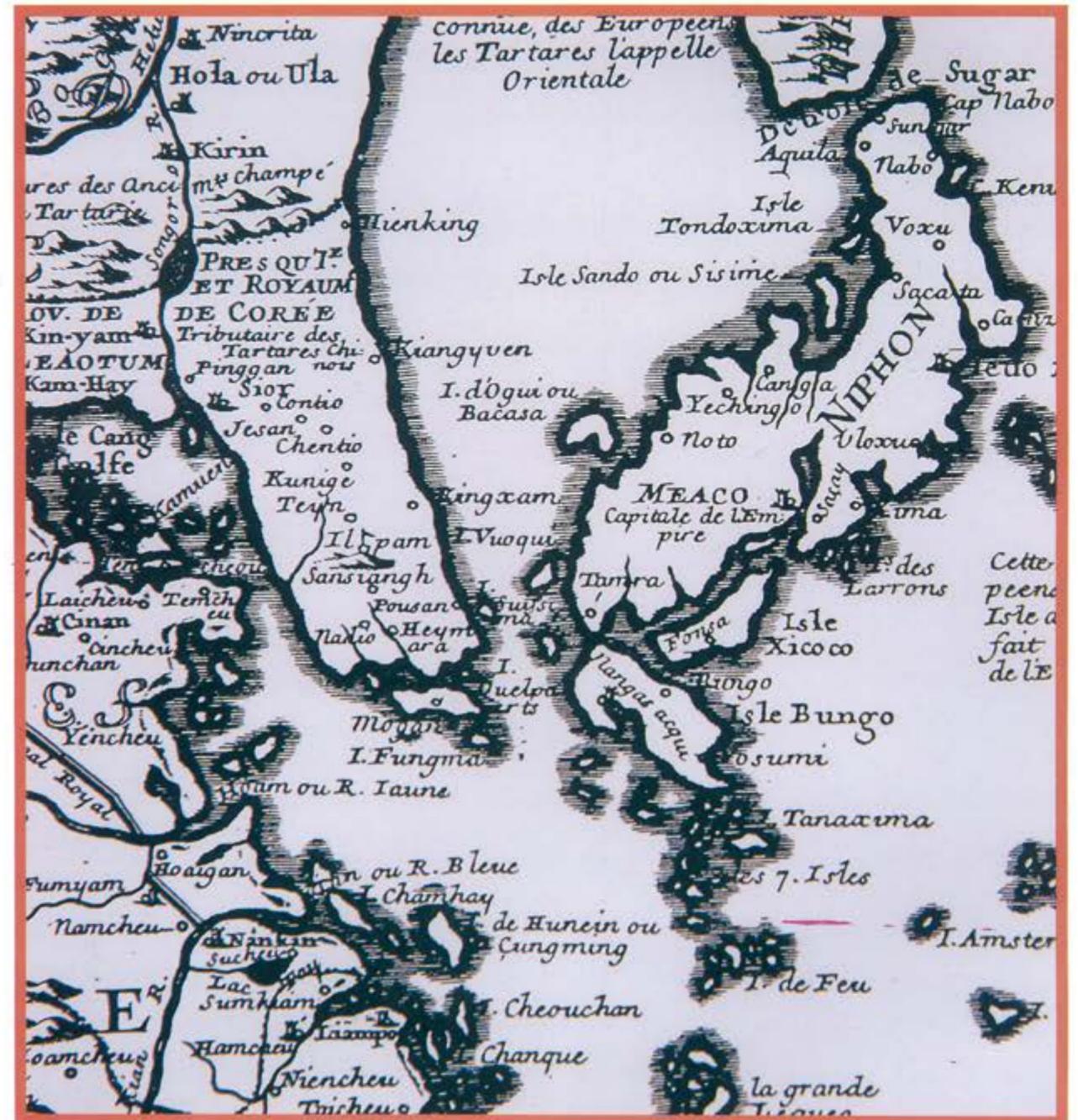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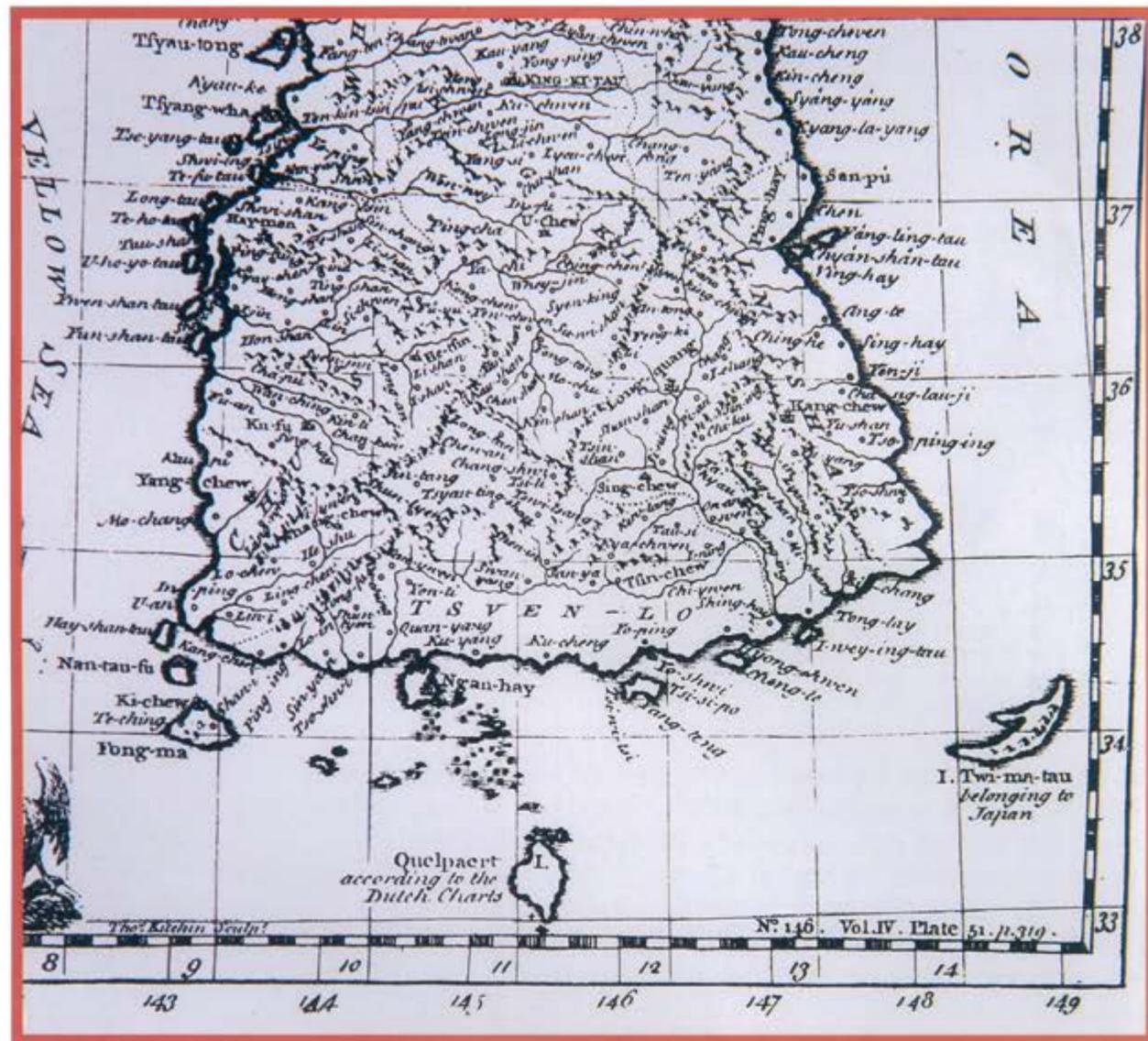
- 크 기 : 25.2cm x 20.7cm
- 제작시기 : 1747년
- 지도형태 : 인쇄본
- 제 작 : 존 그린(John Green)
-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이 지도는 당밀(D' Anville)의 지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북경기점경도와 함께 페로기점경도도 넣어서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케 했다. 제주도는 켈파트(Quelpart)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명칭은 1668년 발간된 하멜표류기가 처음이다. 이는 하멜 일행이 처음 표류해 온 곳이 제주도 가파도였는데 그들은 현지인들이 가파고라고 처음 발음한 것을 켈파트라고 표기한 것이다. 이 이후에 제작된 서양지도에는 제주도를 켈파트로 적혀 있다.

### 4. 동아시아지도

- 제작시기 : 1705년
- 지도형태 : 인쇄본
- 제 작 : 드 페르(De Fer)
- 소 장 처 : 국사편찬위원회

지리학자인 드 페르(1646~1720년)의 지도는 마르티니의 지도를 저본으로 해안의 형태, 지형들을 단순화 시킨 반면, 지명과 지리적 이름에 대한 설명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그가 선교사들의 단순한 지도자료 뿐만 아니라 보고서와 서간문, 문헌자료들 까지 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풍마(L Pungma)로 표기되어 있다. 풍마란 중국에서 제주도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뜻은 정확하지 않지만 바람과 말이 많은 곳이란 뜻이며, 또다른 해석은 사나운 말을 기르는 곳이란 뜻도 있다. 어느경우든 제주도에는 말을 많이 길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명칭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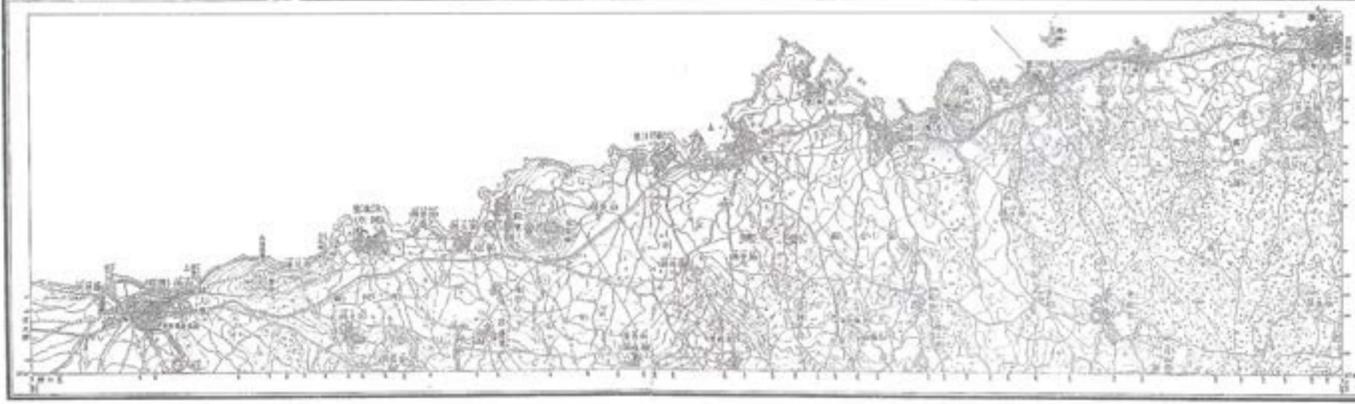


## 5. 제 주 지 도 ( 濟 州 地 圖 )

- 크 기 : 45.1cm x 37cm x 10장
- 제작시기 : 1919년
- 지도형태 : 흑백 인쇄본
- 제 작 : 조선 총독부
- 소 장 처 : 국립지리원

**일** 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현대적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지도를 만들었다. 축척은 1:5만지도와 1:20만의 두 종류였는데, 이 지도는 전자에 속한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20만 지도는 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의 면적을 살펴보면 대한제 국기에는 제주군이 중면(中面) 구우면(舊右面) 신우면(新右面) 신좌면(新左面) 구좌면(舊左面) 등 5개면이었고, 정의군이 좌면, 동중면, 서중면, 우면의 4개면이었으며, 대정군이 좌면, 중면, 우면의 3개면으로 도합 12개면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3개군을 묶어 제주군으로 통합하였고, 그 아래 제주면, 구좌면, 신좌면, 신우면, 구우면, 정의면, 동중면, 서중면, 우면, 대중면, 중면, 좌면, 추자면의 13개 면을 두었다. 그 아래 마을인 167개 리명칭과 자연촌락 명칭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전통적 고지도에는 반드시 표기되던 목장, 봉수, 과원, 방호소 등의 표기가 전혀 없으며 그대신 위도와 경도 표시가 정확하고 오름의 높이도 일일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대신 등고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州 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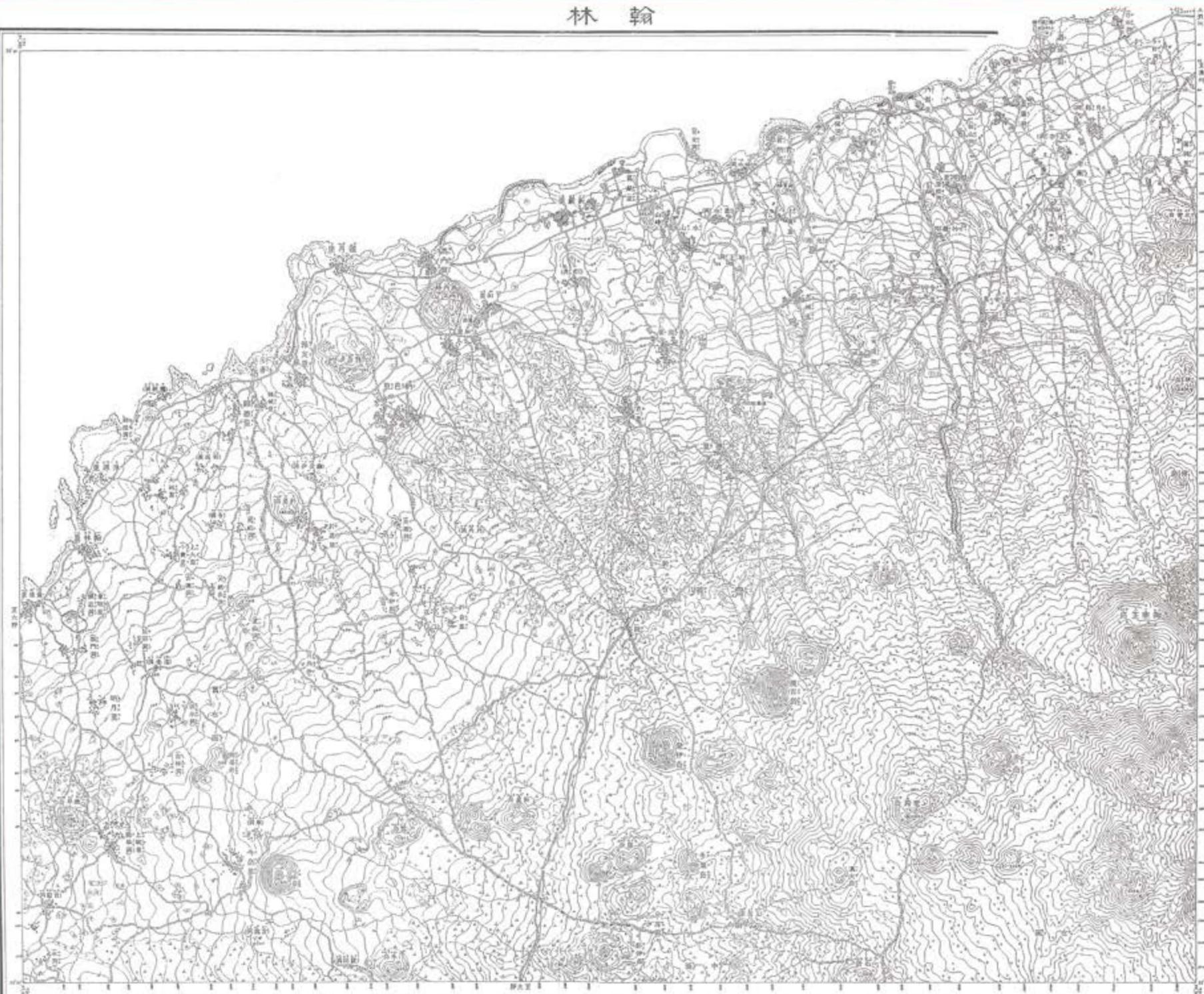
山 漢



飛揚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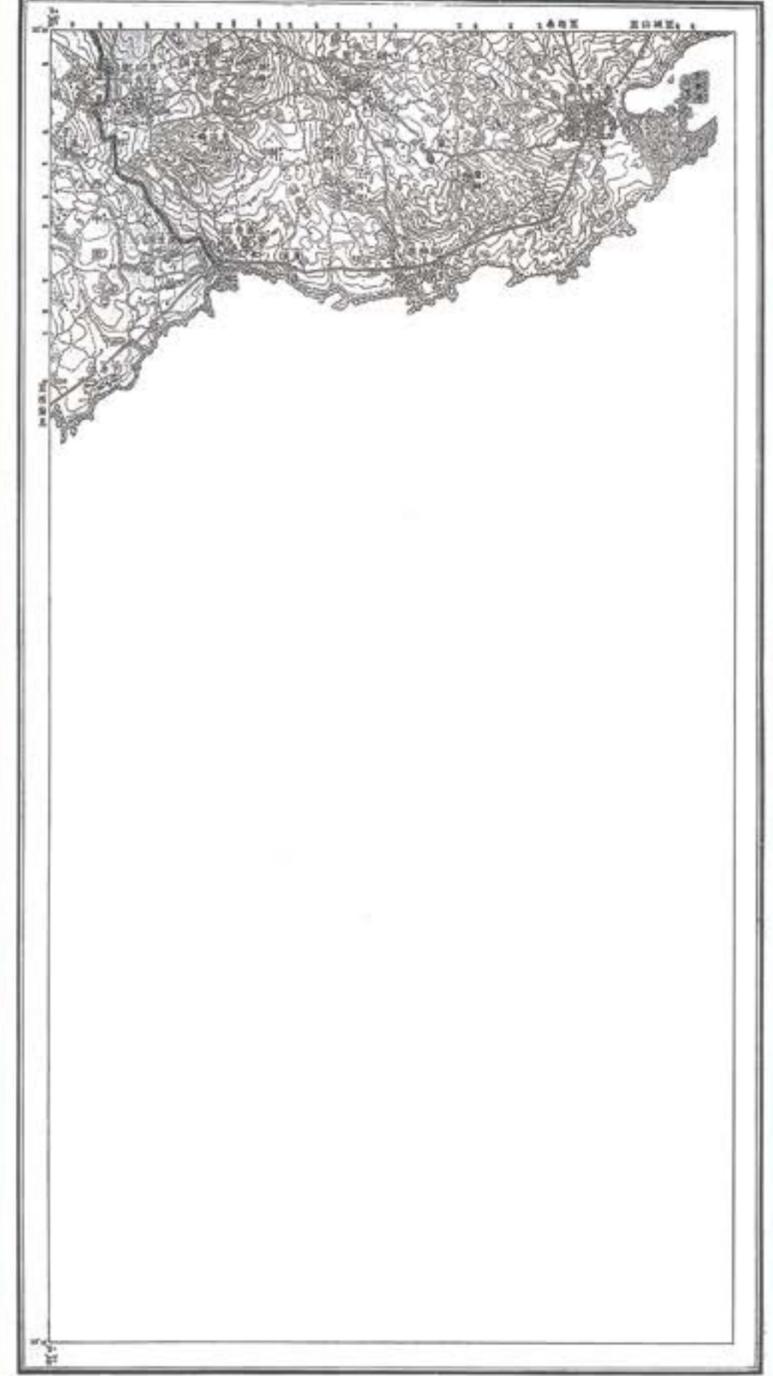
輪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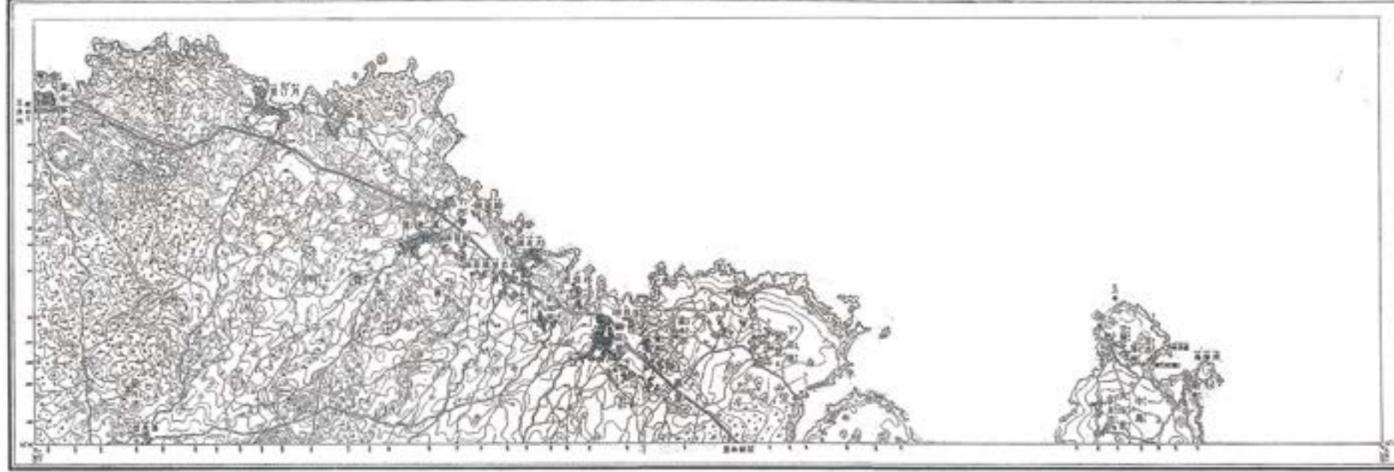
西 嶗 浦



表 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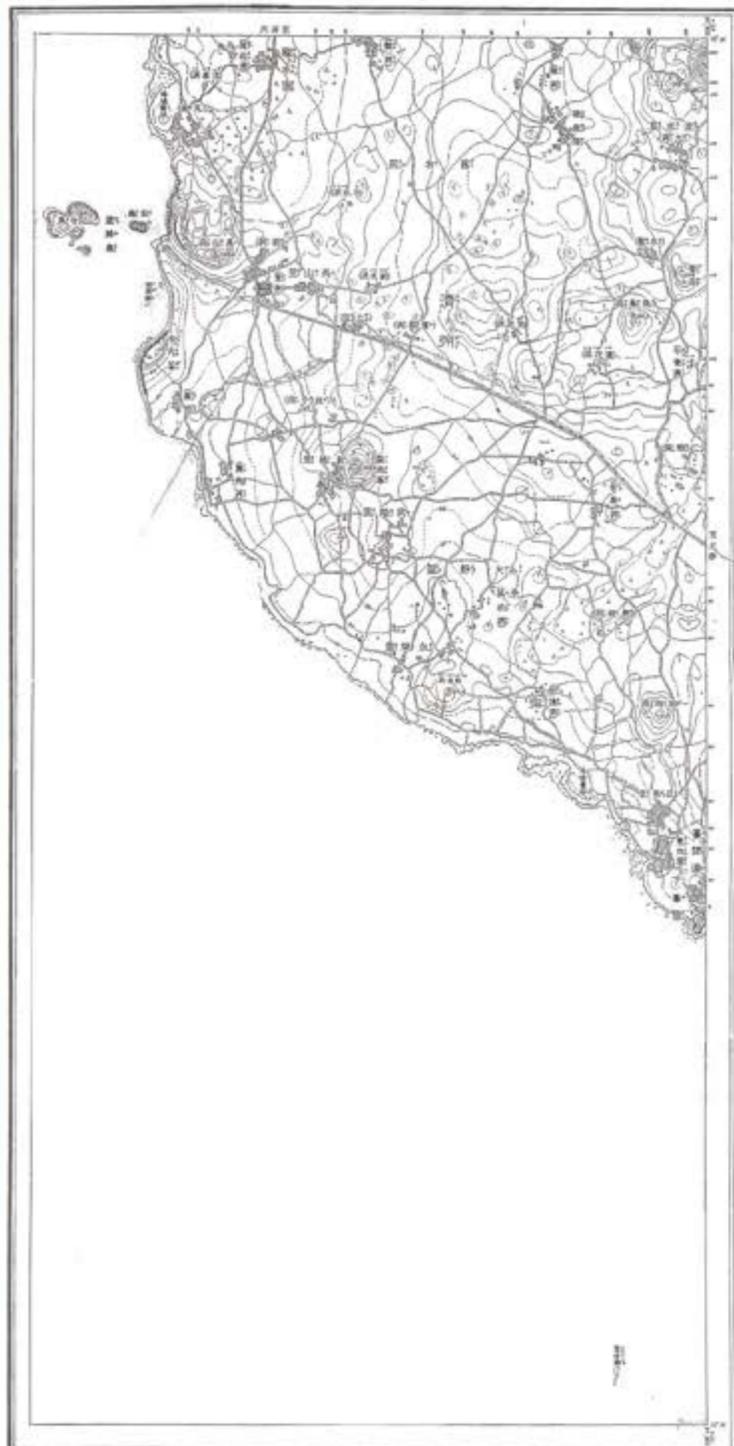
寧 全



浦 山 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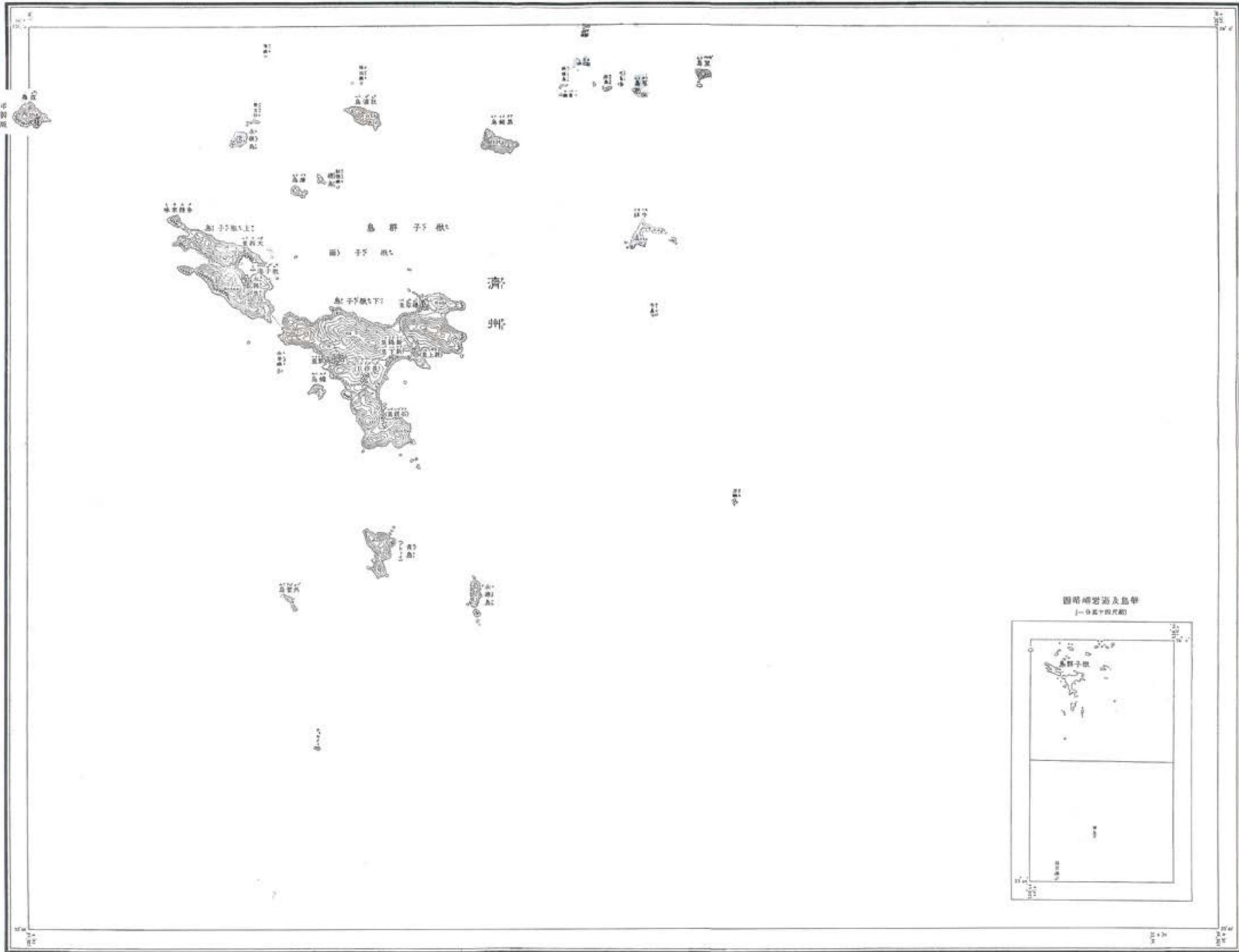
浦瑟摹



島羅馬及靜大



嶽子群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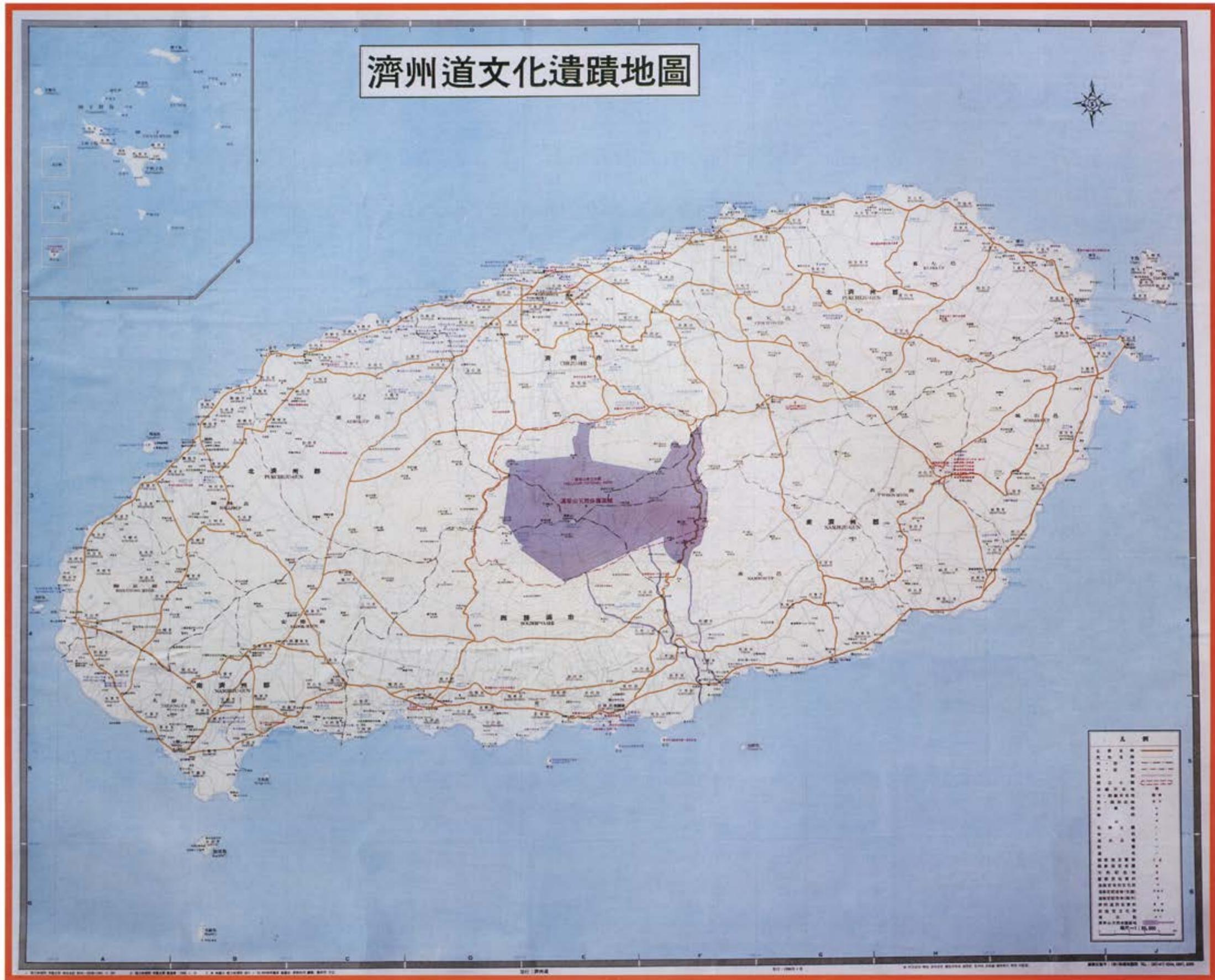




6. 제주도의 학교분포지도 ● 크기 : 39cm x 53.5cm ● 제작시기 : 1920년대 ● 소장처 : 제주교육박물관







9. 제주도문화유적지도(濟州道文化遺蹟地圖) ● 제작시기 : 1996년

## 제5장 濟州의 옛地圖 研究

李 相 泰  
(國史編纂委員會 研究官)

### 1. 머리 말

지도란 지구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쪽에 그린 그림의 일종인데 제주도 고지도란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지도 제작방법에 의해서 그려진 고지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지도는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제작기법에 의해서 구분하거나, 제작내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지도가 처음 제작된 것은 1482년(成宗 13년)에 양성지가 제주삼읍도를 만든 것이 시초인 듯한데 기록에만 나와있고 실물 지도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이 이후에 제작되는 제주삼읍도의 모체가 되었을 것이다.

양성지(梁誠之)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 지도인 동국지도를 제작하고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때 제작된 고지도는 상당한 수준의 제주도지도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지도는 일찍부터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가 만들어졌고 현재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수십종이 소장되어 있다.

### 2. 지도 크기에 의한 분류

제주의 고지도는 크기가 다양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각읍지도 책속에 들어 있는 제주도지도는 가로가 29.2cm이고 세로가 19.2cm인데 비해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제주삼읍도총지도는 가로가 119.5cm이고 세로가 122cm인 대형지도이다.

대체로 지도책이나 지도첩 속에 여러 군현과 같이 제작되어 있는 제주도 지도는 그 크기가 50cm×50cm 미만의 소형지도인데 비하여 제주도를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그려진 고지도는 대부분 크기가 1m×1m가 넘는 대형지도이다. 물론 지도의 크기에 따라 그 지도 속에 담고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소형지도는 대체적으로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정도이지만 대형지도에는 당시 사람들이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전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지도에는 도로망과 하천을 비롯하여 목장, 봉수처, 연대, 오름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으며 또한 지도의 주변을 24방위로 나타내 선박들이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려져 있다. 제주도 고지도를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표1>과 <표2>와 같다.

※ 지도 크기로 분류한 대형 고지도

지도명	크 기	가 로(cm)	세 로(cm)	소 장 처
탐라지도병서		94	15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지도		100	74.2	서울대 규장각
제주삼읍지도		101	79	서울대 규장각
제주목지도		101	79	서울대 규장각
정의군지도		101	79	서울대 규장각
대정군지도		101	79	서울대 규장각
제주도지도		102.5	126.5	승실대 박물관
제주삼읍도총지도		119.5	12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지도 크기로 분류한 소형 고지도

< 표2 >

지도명	크 기	가 로(cm)	세 로(cm)	소 장 처
팔도지도 중 제주도		26.4	18.3	국립중앙도서관
여지도 중 제주목		29.2	19.2	국립중앙도서관
동국팔도본도 중 제주도		28	41.5	성신여대 박물관
등여도 중 제주도		45	29.5	서울대 규장각
대동여지도 중 제주도		45	29.5	서울대 규장각
광여도 중 제주도		37	28.3	서울대 규장각
제주목		37	28.3	국립중앙도서관
정의군지도		40.7	31.6	서울대 규장각
대정군지도		41.5	31.1	서울대 규장각
한라장축		47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		47	30.5	서울대 규장각

### 3. 제작시기에 의한 분류

제주의 고지도 제작한 기록은 일찍부터 발견된다. 고려시대 1002년(穆宗 5년)에 한라산의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을 그려 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에 들어와서는 1482년(成宗 13년)에 지도제작의 전문가인 양성지(梁誠之)가 제주삼읍도를 그려 성종에 바친 기사가 있다.

이와 같이 일찍부터 제주도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현존하는 고지도는 18세기와 19세기에 제작된 고지도들이 대부분이다. 현존하는 고지도 중 가장 오래전에 제작된 고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 6책 속에 들어있는 제주목 지도이다.

이 여지도는 1698년~1703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므로 제주도 지도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외에 광여도 속에 게재되어 있는 고지도나 팔도지도 중의 제주도도 등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지도이다.

그 다음으로 해동지도 책속에 있는 제주도 지도가 18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제주도 고지도 중 제작시기가 뚜렷이 밝혀진 지도는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이 화가 김남길(金南吉)을 시켜 제작한 탐라순력도이고 그중에 게재된 한라장축이 1702년(肅宗 28년)에 제작되었다. 이보다 몇년 후에 제작되었지만 판목으로 찍어내 제주도 지도를 널리 보급시켰으며 제주도 고지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도가 탐라지도인데 강희기축(康熙己丑)이라는 간지가 있는데 이 해는 1709년(肅宗 36년)에 해당되며 제작자는 이등(李等)이라고 했는데 이는 목사 이규성(李奎成)인 듯하며 이 지도는 이 목사의 지휘하에 여럿이 참여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를 모델로 서울대 소장의 제주삼읍지도나 승실대 박물관의 제주도 지도 등이 제작된 듯하다. 제작시기가 뚜렷한 고지도는 1834년에 제작한 청구도 속의 제주도도, 1854년경에 제작한 등여도 속의 제주도도,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 속의 제주도도 등이 있다. 그후 1899년에 제작된 제주목지도, 대정군지도, 정의군지도 등이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3>과 같다.

※ 제작시기로 분류한 고지도

< 표3 >

지 도 명	크 기		제작시기	소 장 처
	가로(cm)	세로(cm)		
여지도의 제주도도	29.2	19.2	1689-1703	국립중앙도서관
광여도의 제주도도	37	28.3	18세기초	서울대 규장각
탐라순력도	47	30	17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탐라지도	98	125	170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삼읍도총지도	119.5	122	177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삼읍지도	101	79	18세기 중엽	서울대 규장각
제주도지도	102.5	126.5	18세기 중엽	숭실대 박물관
청구도의 제주도	30	20	1834	국립중앙도서관
동여도의 제주도	45	29.5	1854	서울대 규장각
대동여지도의 제주도	45	29.5	1861	서울대 규장각
제주도지도	100	74.2	1899	한국교회사연구소
대정군지도	41.5	31.1	1899	서울대 규장각
정의군지도	40.7	31.6	1899	서울대 규장각

4. 제주도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

제주도 고지도는 제주도에 관한 사항을 지도에 나타내고 있지만 그 지도가 전국도나 팔도도의 전라도 지도나 아니면 제주도 단독으로 그려진 지도냐에 따라 그 지도에 담고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다. 또 제작당시의 정보량, 제작자의 제작의도에 따라 각각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여지도나 광여도 등에 들어 있는 제주도도에는 국가에 보고한 고지도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동(洞)이나 리(里)에 관한 사항만 적혀 있다.

그러나 탐라지도 등에는 정보량이 확대되고 필요한 사항도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상, 하단의 지리지 상황을 참고하면 제주도의 동서는 140여리이고 남북은 70여리라고 적고 있으며 목장은 13곳인데 제주목에 7개소, 정의현에 3개소, 대정현에 3개소가 더 소개되어 있다.

봉수는 25곳, 연대는 38곳, 과원은 40곳, 방호소는 9개소이며 촌점(村点)은 150곳인데 제주목이 102곳, 정의 35곳, 대정 13곳으로 적고 있다. 그리고 호구는 8,955호인데 제주가 6,991호, 정의가 1,449호, 대정이 815호이며 인구는 총 45,129명인데 제주가 33,585명이고 정의가 7,459명이며 대정이 4,085명이라고 적고 있다. 18세기초 제주도의 인구는 45,129명이었다.

주요한 이름은 거의 표기했는데 산모양이 음각으로 이름의 이름을 적고 있다.

제주도 지도 내용중 특이한 것은 제주도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해에 필요한 방위와 육지와와의 거리를 증시하여 지도 주변에는 10간, 12지와 건(乾), 곤(坤), 간(艮), 손(巽)의 4괘를 이용하여 24방위를 표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중에 10간의 무(戊)와 기(己)는 빠졌는데 이는 오행사상에 의하면 무와 기의 방위는 중앙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위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제외시킨 것이다. 또 주변에는 일본국을 비롯하여 유구국, 중국의 해안지역과 우리나라 전라도 해안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목장, 봉수, 연대, 과원, 촌점, 호구, 인구, 방호소, 이름 등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4>와 같다.

※ 고지도에 담긴 내용

< 표4 >

품 목	제 주 목	정 의 현	대 정 현	계
목 장	7	3	3	13
봉 수	10	10	5	25
연 대	18	11	9	38
과 원	27	7	6	40
촌 점 (동리)	102	35	13	150
연 호 (호구)	6,991	1,449	815	8,955
인 구	33,585	7,459	4,085	45,129
방 호 소	5	2	2	9
이름				330여개

5. 맺음 말

지도란 지구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쪽에 그린 그림의 일종인데 제주도 고지도란 제주도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지도 제작에 의해서 그려진 고지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지도는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제작시기, 제작내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 고지도를 크기에 따라 구분하면 제일 작은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 책속에 들어 있는 제주도지도로 가로가 29.2cm이고 세로가 19.2cm이고 제일 큰 지도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제주삼읍도총지도로 가로가 119.5cm이고 세로가 122cm인 대형지도이다.

대체로 지도책이나 지도첩 속에 여러 군현과 같이 제작되어 있는 제주도 지도는 그 크기가 50cm×50cm 미만의 소형지도인데 비하여 제주도를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그려진 고지도는 대부분 크기가 1m×1m가 넘는 대형지도이다.

고지도를 제작시기에 의해서 구분하면 가장 오래전에 제작된 고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 6책 속에 들어있는 제주도도이다. 이 여지도는 1688년~1703년 사이에 제작 되었으므로 제주도 지도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외에 광여도 속에 게재되어 있는 고지도나 팔도지도 중의 제주도도 등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지도이다.

그 다음으로 해동지도 책 속에 있는 제주도 지도가 18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제주도 고지도 중 제작시기가 뚜렷이 밝혀진 지도는 제주목사 이형상이 화가 김남길을 시켜 제작한 탐라순력도이고 그중에 게재된 한라장축이 1702년(肅宗 28년)에 제작되었다. 이보다 몇 년 후에 제작되었지만 판목으로 찍어내 제주도지도를 널리 보급시켰으며 제주도 고지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도가 탐라지도인데 이 지도에는 강희 기축(康熙 己丑)이라는 제작연대의 간지가 있으며 이 해는 1709년(肅宗 35년)에 해당된다. 제작자는 이등(李等)이라고만 기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목의 선생안에 의하면 목사 이규성(李奎成)인 듯하며 이 지도는 이 목사의 지휘하에 여럿이 참여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제작시기가 뚜렷한 후기의 고지도는 1834년에 제작한 청구도 속의 제주도도, 1854년경에 제작한 동여도 속의 제주도도, 1861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 속의 제주도도 등이 있다. 그후 1899년에는 제주목지도, 대정군지도, 정의군지도 등이 제작되었다.

제주도 고지도는 제주도에 관한 사항을 지도에 나타내고 있지만 제작당시의 정보량, 제작자의 제작의도에 따라 각각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여지도나 광여도 등에 들어 있는 제주도도에는 국가에 보고한 고지도이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동(洞)이나 리(里)에 관한 사항만 적혀 있다.

그러나 탐라지도 등에는 정보량이 확대되고 필요한 사항도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상, 하단의 지리지 상황을 참고하면 제주도의 동서는 140여리이고 남북은 70여리라고 적고 있으며 목장은 13곳인데 제주목에 7개소, 정의현에 3개소, 대정현에 3개소가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지도에 적힌 10개소보다 3개소가 더 소개되어 있다. 봉수는 25곳이고 연대는 38곳이며 과원은 40곳이고 방호소는 9개소이며 촌점은 150곳인데 제주목이 102곳, 정의 35곳, 대정 13곳으로 적고 있으며 호구는 8,955호인데 제주가 6,991호, 정의가 1,449호, 대정이 815호이며 인구는 총 45,129명인데 제주가 33,585명이고 정의가 7,459명이며 대정이 4,085명이라고 적고 있다.

18세기초 제주도의 인구는 45,129명이었다. 주요한 이름은 거의 표기했는데 산모양의 음각으로 이름의 이름을 적고 있다. 제주도 지도 내용중 특이한 것은 제주도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해에 필요한 방위와 육지와와의 거리를 증시하여 지도 주변에는 10간, 12지와 건(乾), 곤(坤), 간(艮), 손(巽)의 4괘를 이용하여 24방위를 표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중에 10간의 무(戊)와 기(己)는 빠졌는데 이는 오행사상에 의하면 무와 기의 방위는 중앙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위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제외시킨 것이다. 또 주변에는 일본국을 비롯하여 유구국, 중국의 해안지역과 우리나라 전라도 해안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 현존하는 제주도 고지도 목록

< 표5 >

순번	고지도명	도서번호	소장처
1	각읍지도	한 61-4	국립중앙도서관
2	고지도첩		영남대
3	고지도첩		영남대
4	관동지도	고 4709-35	규장각
5	대동방여전도	규 10341	규장각
6	대동여지도	규 10333	규장각
	대동여지도	한 61-1 귀 114	국립중앙도서관
7	대동지도	한 61-9 귀 121	국립중앙도서관
8	대한선지지부지도	한 61-84	국립중앙도서관
9	대한여지도	고추 4709-47	규장각
10	대한제국지도		이화여대
11	동국도적	고 4709-54	규장각
12	동국여도	(고 4703-50)	고려대
13	동국지도	고 4709-112	규장각
14	동국팔역도	한 61-26	국립중앙도서관
15	동여도	규 10340	규장각
16	동여전도	고 4709-76	규장각
17	동여총도	한 61-16	국립중앙도서관
18	동역도	고 4709-27	규장각
19	분도상밀한국신지도		영남대
20	산남지도	고추 4709-104	규장각
21	삼한일람도	고 4709-104	규장각
22	아동여지도	한 61-48	국립중앙도서관
23	여지도	고 4709-37	규장각
24	여지도	한 61-8	국립중앙도서관
25	여지고람도보	한 61-18 귀 123	국립중앙도서관

순번	고지도명	도서번호	소장처
26	여지도	고 4709-37	규장각
27	여지도	고 4709-78	규장각
28	여지도설		숭실대
29	영남호남연해형편도	한 61-20 귀 116	국립중앙도서관
30	전라도지도	전 10432-10511	규장각
31	전라남북도여지도		영남대
32	점역지도	한 61-69	국립중앙도서관
33	제주도도		숭실대
34	조선강역총도	고 4709-53	규장각
35	조선전도	한 61-62	국립중앙도서관
36	조선팔도지도	한 61-61	국립중앙도서관
37	조선여지도		영남대
38	조선십삼도		영남대
39	조선전도	한 61-72	국립중앙도서관
40	조선전도		고려대
41	조선지도	한 61-30	국립중앙도서관
42	조선팔역도	한 61-7 귀 115	국립중앙도서관
43	조선팔도지도	고 4709-13	규장각
44	좌해분도	고 4709-99	규장각
45	좌해여도	규 12229	규장각
46	지도지		국사편찬위원회
47	천하도(동국도)		영남대
48	천하지도	한 61-5	국립중앙도서관
49	청구도		국립중앙도서관
50	탐라지도	고 4708-87	규장각
51	팔도지도	고 4709-73	규장각

## 發 刊 經 緯

梁 才 博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長)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과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그림의 형태로 나타낸 도서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옛지도는 우리 선조들이 제주 지형에 대한 인식과 또 당시의 지명, 교통, 통신, 풍물 등 주요 정보와 행정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歷史資料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박물관에서는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제주의 옛지도를 한데 묶어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전국의 각 박물관, 도서관, 사료관 등 관계기관에 1차적으로 소장 여부를 조회하였던 바, 제주도전도는 물론 전국도의 부분도로서의 제주도 옛지도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인에 따라 우리 박물관의 이영배 고고민속과장과 고재원 연구원이 현지를 방문 조사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 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규장각의 한영우 관장,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의 허영환 관장 등 여러분께서 특별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책자로도 발간하여 관심있는 도민이나 향토 사학자 또는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그간 수집한 자료 중 40여점을 선정하여 『제주의 옛지도』 특별전(1995. 9. 1~1995. 11. 30)을 개최하였던바 예상외로 큰 호응을 얻은데 힘입어 책자를 발간키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1996년 상반기에 2차례에 걸쳐 지도를 소장할만한 기관, 단체를 방문 조사하여 100여점을 확보하고 그중 책자에 수록할 80여점을 선정하는 한편 우리의 옛지도 외에 서양인들이 그린 제주지도와 근래에 그려진 현대지도도 수록하기로 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도의 분류와 해설을 받아 오늘 이렇게 『濟州의 옛地圖』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소장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증보판까지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제주의 역사와 옛 문물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간 책자를 발간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거운 카메라 장비들을 들고 다니며 사진을 촬영해 준 사진작가 고길홍씨와 지도자료의 수집과 해설을 하여 주신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선생님과 규장각의 양보경 선생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영남대학교 박물관, 숭실대학교 박물관, 호암미술관, 국립지리원, 국사편찬위원회, 제주교육박물관 등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 편집 발간

관리자 : 양 재 박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실 무 : 이 영 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김 동 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원)  
          고 재 원 (                   ·                   )  
          오 진 영 (                   ·                   )

### 濟州의 옛地圖

---

發行日 : 1996年 11月 日  
發行處 : 濟州民俗自然史博物館  
編輯 : 考 古 民 俗 科  
印刷處 : 濟州道印刷工業協同組合  
          (日新畝印刷社)  
          ☎ 22-2921 · 58-8840

---

< 非賣品 >